고준희·정진운 '우결 부부'

metro

메트로 2013년 2월 8일 금요일 www.metroseoul.co.kr

영하 17도 매서운 설추위

연말정산 일부 자료 누락 시끌

NEWS p/03

알짜앱 덕에 가족 웃음꽃 활짝

IT p/14

이다해·장혁 세번째 입맞춤

메트로 2013년 2월 8일 금요일 www.metroseoul.co.kr

완패 최강희호 속타는 입국

고향가는 길 메트로신문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오늘 서울역·용산역 등 7곳서 특별 배포

고사리손 모아 세배 열공

설 명절을 앞둔 7일 대전 유성구청 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세배 예쁘게 하는 법을 연습하고 있다. 이날 어린이들은 세뱃돈 공손하게 받기와 설 전통풍속 등을 배웠다. /연합뉴스

'감동의 설' 만든 왼손 드라이버

뇌병변 장애 극복 '인간승리 택시기사' 장현용씨
거스름돈 건네준 손님 정성 모아 첫 후원금 전달

"저는 '잘 해야 식물인간'이란 진단을 받고도 기적처럼 살아난 행운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보다 함께 잘 사는 쪽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뇌병변장애(3급) 택시기사 장현용(37)씨의 표정엔 미소가 넘쳤다.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지난 6일 장씨의 택시에 올라 이유를 들어봤다.

서울 강남의 평범한 가정에서 세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장씨는 일곱 살 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의식이 없어 다친 줄 몰랐던 장씨를 데리고 뒤늦게 병원을 찾은 장씨의 부모에게 의사는 "포기하라"는 말을 조심스레 건넸다. 뇌출혈이었다. "식물인간이 돼도 좋으니 수술만 시켜달라"는 어머니의 애원이 지금의 장씨를 있게 했다.

◆ "스치기만 해도 인연" 손님과 찍은 사진 6000장이 보물

목숨은 건졌지만 장씨에겐 언어장애와 오른쪽 팔다리 장애가 남았다. 주변에서는 특수학교에 보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장애아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입학을 미뤘다. 장씨가 "엄마, 아빠"란 말을 할 수 있게 된 아홉 살에야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중학생 때 집안 사정으로 강남에서 금천구 시흥동으로 이사했지만 장씨는 전학을 가지 않고 버텼다. 남들보다 공부 시작은 늦었지만 뒤처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벽 5시30분에 집을 나서면 2시간 뒤에야 학교에 도착했죠. 집에서 학교까지 멀기도 했지만 불편한 몸으로 지하철을 갈아타다 보니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2년을 꼬박 다녀 겨우 졸업했어요."

대학에서는 신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한때 목회자를 꿈꿨지만 어눌한 말투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2003년 우연한 기회에 택시운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불편한 오른쪽 팔다리는 12시간의 고된 노동을 버텨주지 못했다. 결국 1년 만에 택시운전을 접었다.

이후 유통업을 하는 친구 일을 도우면서 운전 실력이 몰라보게 늘었고 체력도 비장애인 못지않게 좋아졌다.

◆ 500원 푼돈도 나누면 수천억 온정 욕든

2011년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 왼손으로 운전하고 왼손으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만 아주 좁은 골목길만 아니면 무리 없이 운전할 정도다. 손님들은 그런 장씨를 보고 "대단하다" "멋지다"고 덕담을 해준다. '스치고 나면 그만'이라지만 특별히 고마운 승객들과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 보면 용기가 생겼다.

▶기사 2면에 계속

/정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장현용씨가 6일 서울 금천구 ... 에 주차된 택시 안에서 승객들과 찍은 사진을 들여보이고 있다. /한준희기자 haychang@

기필고 세운 참전용사들 6·25전쟁 당시 전라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을 위해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가평교육학교(옛 가이사중학원)을 세웠던 미 제40보병사단 출신 참전용사들이 7일 열린 이 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꽃을 받고 있다. 이날 참전용사들은 장학금 1005달러도 전달했다. /연합뉴스

<줍충상담 필요한 '주의군'>

불안·우울한 학생 22만명

정서건강 나빠져 관심 필요한 초중고교생은 105만명

초·중·고교생 9명 중 1명은 정서건강이 나빠져 '관심군'이나 '주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648만2474명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심군 학생은 16.3%(105만4000명), 주의군 학생은 4.5%(22만3000명)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전년 대비 관심군은 5.7%포인트, 주의군은 0.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관심군은 1차 검사 결과 학교 내 상담·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말하며 주의군은 2차 검사 결과 심층상담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의미한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관심군과 주의군에 속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중학생의 경우 18.3%가 관심군, 7.1%가 주의군에 속했다. 초등학생은 관심군에 16.6%, 주의군에 2.4% 분포됐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관심군 13.8%, 주의군 5.4%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관심군 남녀 학생은 각각 16.8, 15.7%였으며 주의군 남녀 비율은 각각 3.9, 5.2%였다.

지역별로는 전북(20.2%), 충북(19.8%), 전남(19.4%) 등에서 관심군이 많았으며 충남(7.0%), 제주(6.5%), 강원(6.1%) 등은 주의군이 많았다.

교과부는 2차 검사 결과 주의군 학생에 대해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교내 Wee 클래스 등을 통해 심층사정평가 및 사후관리 조치를 실시했다.

/최용호기자 ajavan@metroseoul.co.kr

감동의 설 만든 택시 드라이버

▶기사 1면서 계속 그렇게 찍은 사진이 6000여 장. 한 승객의 권유로 '스마일 한국택시'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승객과 찍은 사진으로 작은 전시관을 만들었다. 점모(점거모임)를 해보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장씨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대신 승객들에 대한 고마움을 다른 이웃에게 돌리기로 결심했다.

지난해부터 승객들이 받지 않은 거스름돈을 따로 모아 '오백냥 후원금'을 만들었다. 사연을 전해 들은 분들은 차비에 1000원씩 얹어주기도 한다. 설 연휴가 끝나는 12일 첫 후원금이 주인을 찾아간다. 금천구 내 독거노인들에게 쌀을 지원하기로 한 것.

"여러 사람을 만나는 택시운전을 하면서도 늘 사람이 그립거든요. 그런데 혼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푼돈이지만 제가 혼자로 쓸 수 없더라고요."

인터뷰를 마친 오후 6시 '훈남 노총각' 장씨가 어둑해진 거리로 택시를 몬다. "요즘 승객이 많이 줄어 걱정"이라면서도 좋은 인연 들아 건네준 온정을 더 큰 어려운 이웃에게 되돌려줄 생각에 싱글벙글이다.

이마트 본사·지점 등 13곳 압수수색

직원사찰 등 부당노동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그룹 이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 실시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에 특별사법경찰관 1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의혹으로 제기된 여러 혐의가 문제가 있다고 확인했으나 이마트 측에서 증거제출을 회피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효순기자 hs@metroseoul.co.kr

7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칼바람을 맞으며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영하 17도 매서운 설 추위

설 연휴 내내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9일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설 연휴 기간에도 한파가 불어닥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또 "그동안 내린 눈이 얼어붙어 귀성시 빙판길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연휴가 끝나는 12일 오후에는 전국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윤희기자

교육과정	교육시간
42th 외식산업 CEO	화 14:00~18:20
뷰티교육 CEO (현직 뷰티교육기관장에 한함)	화 15:30~18:30 수 15:30~18:30

교육과정	교육시간
41th 창작사진	월 18:30~21:30 화 10:00~13:30
사진 세미나 (프로젝트 실시현황)	월 18:30~21:30 수 10:00~13:00
17th 인물사진 컨텐츠 전문가	화 13:20~18:40

교육과정	교육시간
커피 전문가	월 14:00~18:00
와인&마케팅 전문가	수 19:00~22:00
보험 심사평가사 1급 과정 (15회 단체 한함)	토 09:00~18:00

학과명	학위명	모집인원	교육기간	지원자격
컴퓨터정보학과	컴퓨터공학사	40명	2년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수능/내신 무관
멀티미디어학과	컴퓨터공학사	40명	2년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40명	2년	
아동학과 (보육교사2급자격증)	문학사	40명	2년 6개월	
체육학과	체육학사	40명	2년	
공연예술학과	연극학사	40명	3년	
연기예술학과	연극학사	40명	3년	

무이자할부 또 올스톱

일부카드사들 17일부터 중단…고객만 다시 골탕

카드사·가맹점 싸움에 고객들 피해가 커지게 됐다. 무이자 할부 마케팅비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중단을 선언했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하나SK카드는 오는 17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 가맹점 또는 생활편의 업종에 대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업종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보험 등이다.

삼성카드와 비씨카드, KB국민카드도 이달 말부터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접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과 합상이 여의치 않아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를 오는 17일 이후 계속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도 "현재 분위기로는 오는 17일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 중단 시 고객 고지에 미흡한 면이 있어 카드사들이 이달 중순 또는 말까지 자체 비용으로 한시 행사를 했다"면서 "무이자 할부 행사가 이번에 끝나면 추가 연장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이후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받으려면 무이자 할부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써야만 한다.

국민카드의 '와이즈카드'나 신한카드의 '삼듬카드' 가 가능하다. 카드사들은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 중단에 따른 고객 불편을 줄이려고 추첨행사 등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무이자 할부 대신 포인트 적립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한카드와 국민카드는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할부 이벤트 응모 후 2~3개월 할부로 거래하면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우수 고객에게 보유 카드 여부와 관계없이 등급별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는 제도를 확대한다.

/김민지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뱀과 셀카 찰칵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아쿠아리움에서 열린 뱀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터치터치 스네이크!' 이벤트에 참가한 한 어린이가 뱀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하루 한 번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연합뉴스

설음식 베란다 보관 위험

기온낮아도 햇빛땐 세균 증식

주부 황승주(39)씨는 설 명절을 맞아 차린 차례음식과 각종 선물로 들어온 음식들을 베란다에 내놓는다. 냉장고 안은 이미 가득 찼고, 베란다도 추운 날씨로 얼어붙어 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관한 음식들은 햇빛에 노출돼 세균이 더 많이 증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겨울철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다며 설 음식을 준비할 때 위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은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음식물 섭취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도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명절에는 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 식재료 적량 구입, 식사 인원에 맞춰 알맞은 양을 가열·조리, 조리한 음식은 바로 냉장고에 보관, 개인별 반찬 덜어먹기, 채소류는 먹기 직전에 흐르는 물에 다시 씻기, 남은 음식 재가열 뒤 섭취가 필요하다.

식약청은 음식을 조리할 때는 온도를 85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야 하며 어패류는 가급적 익혀 먹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신호기자

세뱃돈 준비 민족 대명절 설을 사흘 앞둔 7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한 고객이 만원권 지폐를 신권으로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정·시댁 똑같이 용돈 20만원씩

주부들은 설 명절에 친정과 시댁에 똑같이 용돈을 20만원씩 줄 계획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NS홈쇼핑이 기혼 여성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가 '시댁과 친정 부모 모두에게 같은 액수의 용돈을 주겠다'고 대답했다고 7일 밝혔다.

부모님께 드릴 용돈의 액수는 20만원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만원(35%), 10만원(25%) 순이었다. 드리고 싶은 설 선물로는 현금(65%)이 1위로 집계됐고 식품(22%)과 상품권(7%)이 뒤를 이었다.

설에 가장 하기 싫은 가사노동으로는 설거지(29%)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술상 차리기(27%), 차례상 준비(27%), 청소(17%)도 피하고 싶어했다.

생활용품업체 CJ라이온이 최근 주부 171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명절에 남편이 도와줬으면 하는 집안일'로 주부 58%가 설거지라고 답했다.

/박지원기자

연말정산 마친 직장인들 날벼락

일부 의료기관·카드사 등 증빙신고 늦어 자료 누락

지난달 15~21일 연말정산을 신고한 직장인은 신고 내역을 재차 점검해야 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치과 등 의료기관과 일부 카드사가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납세자의 자료 실적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됐다"며 "7일부터 해당 사업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통보를 받은 직장인은 이달 중 회사에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되 늦을 경우 다음달 11일 이후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 소득세확정신고 때 이를 신고하면 공제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과 카드사 등이 1월 7일까지 소득공제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아무 2주간의 수정 기간이 있었다"며 "15~21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만 믿고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여러 건의 증빙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상훈기자

홈키파·에프킬라 일부 제품 시장 퇴출

홈키파와 에프킬라 등 유명 가정용 살충제 브랜드의 일부 제품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13개 성분 361개 살충제 가운데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14개 제품을 허가 취소하는 등 총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치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졸제' 9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 에어로졸제(훈증 기피제)' 9개 제품은 성분함량을 0.25% 이하, 0.5%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허가사항도 변경했다.

알레트린과 퍼메트린 성분은 적정 농도에서 안전하지만 과다 노출되면 재채기, 비염, 천식,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대상 제품 가운데는 홈키파 에어졸, 홈키파수성기보이에어졸, 에프킬라 에이지에어로졸, 그린포스에어로솔, 홈가드에어졸 등이 포함됐고, 자발적 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전효순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2월> 그림 박상철

"48% 국민 잊지말라" "어휴 그래야죠"

박 당선인-여야 대표 '북핵공조 국정협의체 구성' 합의

'손가락 건 사이' 朴-文 설 덕담 주거니받거니
"핵문제 오판 말라 북에 경고하는 자리" 훈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여야 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과 함께 민생 현안 등 국정 논의를 위한 협의체 가동에 전격 합의했다.

박 당선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북핵 관련 3자 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고 서로를 국정 운영 동반자로 확인하며 공조 협력 가능성을 넓혔다.

이날 회동을 통해 박 당선인은 여야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새 정부 출범의 걸림돌(북핵) 제거에 한 발 다가섰고 민주당은 '안보 정당'의 이미지를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여야 대표와 마주앉은 박 당선인은 악수를 청하는 취재진 요청에 "(양쪽에 있어서) 악수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농담을 건네는 등 시작부터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위기 상황일수록 여야 지도자가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나가야 한다"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당선인의 주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더도 덜도 없이 생각이 똑같다"며 맞장구를 친 문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여야 구분 없이 당선인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도 큰 설 선물이다. 이 자리는 북한에 오판하지 마라, 안보에 있어 우리는 하나다 는 것을 알리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오후 국회에서 황우여(왼쪽)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북핵 관련 3자 회동을 갖기에 앞서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박 당선인과 여야의 상생 분위기가 국정 전반으로 번질 분위기도 감지됐다. 문 위원장은 박 당선인에게 "48%의 국민을 잊지 말고 100% 대통령이 돼 달라. 출범 후 100일이 중요하므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일정표를 만들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덕담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잊지 않겠다. 그분들 더 품고 가겠다. 공정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박 당선인이 국정 전반과 관련한 협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여야협의체에 공감을 표시하고 공통 공약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공감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유지기자 gracen@metroseoul.co.kr

총리 후보·靑 비서실장 朴, 오늘 직접 발표할듯

"설 민심 우려에 서둘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8일 1차 인선안을 발표한다.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가 낙마한 지 10여 일 만으로 조각 작업이 더 이상 지체되선 곤란하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7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내일(8일) 오전 10시 주요 인선에 관한 1차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2차 발표는 설 연휴 이후 인선과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인선 범위나 폭,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1차 인선안을 직접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총리 후보자와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주요 인선안 발표 시점은 당초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은 피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예상을 벗나갔다. 인선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가족이 모이는 설 밥상 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유지기자

"죄송한 마음 잊지 않겠다" 안철수, 지인들에게 e메일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7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기대하셨던 결과를 만들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는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보낸 '설날 인사'라는 제목의 e메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잘 지내고 계시리라고 믿는다. 저도 매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희망찬 설날을 맞이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서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안 전 후보는 대선 당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뒤 침묵하고 있다. 안 전 후보가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대선 이후 50일 만에 처음이다. /김유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 편집인 남 궁 호
사장 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고국장 직대 김 완 흡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2
2002년 5월 31일 창간 2002.5.30 등록번호 문화가 00017

여, 개헌 논의 기다렸다는듯…

민주, 국회 특위설치 제안에 "면밀 검토하겠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새 정치 실현을 위해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도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감사원 국회 이관" 주장

그는 이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은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새 정부가 실현하려는 민생정치에 접목하고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도 개헌 논의에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차차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요기자 aloston@

인권위, 대통령에 "불법사찰 근절 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은 2001년 11월 설립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7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불법 사찰이 정부의 공식 조직에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점 등 때문에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찰에 의한 정보가 대통령실에 보고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 부분을 결정문이 어떻게 녹여낼지 주심위원이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실에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사찰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4월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집된 정보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명 '영포라인' 관련자에게 유출돼 권력의 남용으로 귀결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김유리기자

① 신문 배포대에서 메트로신문을 집는다
② 오늘의 복코드를 찾고 오늘의 상품을 확인한다
③ 복코드 앱을 휴대폰에 내려받아 실행한다
④ 스캔하기 버튼을 누르고 오늘의 복코드를 스캔한다
⑤ 스크래치 카드를 긁어 당신의 행운을 확인한다

"연이틀 당첨 복 터졌죠"

출근길 행운 주는 '메트로신문 복코드'앱 인기

메트로신문이 설 연휴를 앞두고 모든 독자들에게 새해 큰 복을 기원하며 준비한 '복코드' 앱이 화제다. 첫날 비거링 와퍼주니어버거와 둘째 날 금락소 에너지음료에 연거푸 당첨됐다는 직장인 김동현(37)씨는 "메트로신문의 '복코드'는 아침 출근길을 활기찬 행운의 아침으로 바꿔줬다"면서 "매일 기대하면서 복코드를 긁어본다"고 말했다.

메트로신문에 매일 새롭게 게재되는 복주머니 컬러 코드를 '복코드' 앱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스크래치에 참여할 수 있다. 매일 바뀌는 오늘의 상품과 실시간 잔여 수량을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문지르면 복권을 긁는 것처럼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알려준다. 매일 기회가 주어지고, 당첨되지 않았을 때는 광고를 보면 참여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최근에는 평균 30%의 응모에 당첨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코드'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iOS 버전도 곧 앱스토어에 론칭된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매일 새로운 경품을 제공하는 '복코드' 앱은 아침 출근길을 기대하게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로 직장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배동호기자

본 이벤트는 (주)메트로신문사와 (주)모바일미디어가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쓰레기 버렸다간 20만원

설 연휴 꼭 기억하세요

내일부터 3일간 수거중단 응급병원 119서도 알려줘

짧은 설 연휴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1일까지 쓰레기 수거를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김정선 시 생활환경과장은 "이 기간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명절에 발생한 쓰레기는 각 가정과 상가에서 보관 후 12일부터 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구청에서는 11일 저녁부터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므로 해당 구청 청소과에 문의하거나 자치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시는 연휴 중 응급환자에 대처하기 위해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운영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응급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1339.or.kr)를 통해 지역과 일자별로 확인 가능하다. 국번 없이 119 및 1339,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하면 응급처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진통제, 해열제, 파스, 어린이 감기약 등 13개 상비의약품은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귀경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시내버스와 지하철 막차를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서울역, 용산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등 8개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128개 노선을 종점(차고지) 방향으로 오전 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또 연휴 기간에 망우리와 용미리 시립묘지를 찾는 성묘객을 위해 시내버스 4개 노선(201·262·270·703번)을 84회 증회 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와 지하철 모두 행선지별로 막차시간이 다르므로 이용하기 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한·미 해병대 기마전 대결 한파가 몰아친 7일 강원 평창군 황병산 산악 종합훈련장에서 해병대 수색대대와 미 해병대 소속 장병들이 설한지 훈련 도중 기마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 싸게! 서울 중소유통 물류센터 오픈

서울 시내 중소 슈퍼마켓, 전통시장 상인, 골목 가게 등을 운영하는 점포주를 대상으로 한 중소유통 물류센터가 개설됐다.

7일 서울시는 시내 700여 개 중소 슈퍼마켓 등이 공동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유통단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첨단 물류센터를 서초구 양재동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에 세워진 이 물류센터는 경부고속도로에서 5km 거리로 물류 근접성이 좋고, 5단계의 유통구조를 3단계로 줄여 각종 상품을 10%가량 싸게 공급할 수 있다. 또 재고 유지 비용을 대폭 줄여주기 위해 고회전 품목 3000여 종을 직접 배송할 방침이다. /배동호기자

매달 한번꼴 중국여행 다녀온 팸투어 공무원

업무상 이해관계인과 33차례 중국 여행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관광홍보담당 공무원 A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팸투어 업무를 맡으면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연가 사유를 허위로 보고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계약업체인 모 사단법인 이사장과 33차례에 걸쳐 123일간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중에는 4차례에 걸쳐 186만여 원 상당의 항공료를 제공받았고 중국 측 업무관계자로부터 1190만원 상당의 숙박비와 식사비까지 받았다.

A씨는 "중국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상급자에게 정당 보고를 하지 않고 이미 폐지된 사업의 관련자로부터 중국 여행과 향응을 제공받은 점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서울시에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장윤희기자

외국인에게 바가지 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부당 요금을 받은 택시를 신고한 시민은 포상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당 요금을 청구받은 외국인이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장윤희기자

명절 연휴 짧을수록 교통사고 빈발

당일 오후 1~2시 최다

명절 연휴가 짧을수록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설과 추석 연휴 기간 시내 도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명절 당일 오후 1~2시 사이에 가장 사고가 빈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비교해보면 연휴 기간이 3일인 경우에는 하루 평균 15.4건, 4일인 경우 12.3건, 5일인 경우에는 9.0건이 발생했다.

또 명절 연휴 중에서도 설이나 추석 당일 오후 1~2시, 4~5시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3년 간 명절 당일 평균 사고 발생 건수는 22.2건으로 명절 전일과 다음날 평균인 10.9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명절 당일의 시간대별 교통사고는 오후 1~2시에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오후 4~5시, 오전 10~11시, 정오~오후 1시, 오후 2~3시, 오후 6~7시에도 사고가 잦았다. /배동호기자 elayan@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Canada

uman at the library

17 years later Alleged triad leader finally faces immigration hearing

AN
RVES A
NAME.

metro France

lackBerry : le Z10 déçoit

'화장실 찾기' 앱 개발대회 우승

최근 프랑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대회가 출품다. 대회에 출기한 수십 명의 젊은 개발자 중 5명의 '메커군단'은 화장실 찾기 앱 '더 플레이스 투 피(The place to pee)'를 개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더 플레이스 투 피는 파리 시내 공공 화장실, 카페, 레스토랑, 공공장소 주변에 있는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는 앱이다. 사용자들이 출혈도, 잠금 장치 및 화장지 유무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특징이다.

metro Russia

Реплика превзошла подлинник

다이아 5000개 박힌 왕관 복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보석 박람회가 오는 15일까지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대황관이 복원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보석 복원을 맡은 스몰렌스크 크리스탈사 다반틴은 "이번 전시회는 보석을 유난히 사랑한 것으로 유명한 예카테리나 2세를 기념하고자 기획했다"고 밝혔다. 로마노프 왕가의 대관식에 사용된 진품 왕관은 4936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돼 있으며 사용된 전체 보석 수도 1만1000개나 된다.

metro Peru

Ingenio de UTEC para saciar la sed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

성적소수자·채식주의자 등과 대화 기회 주는 '인간도서관' 북미·유럽서 좋은 반응

"관심 있는 인간 책 빌려 가세요."

최근 캐나다 벤쿠버에서 인간 도서관(Human Library) 행사가 열렸다. '인간 도서관'에서는 딱딱한 책 대신 소방관, 채식주의자, 성적 소수자 등 살아있는 '인간 책'을 빌려 갈 수 있다.

행사에 참가한 카렌 장은 "20분 동안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는 존 브린이라는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정말 많은 점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스퍼거증후군은 겉보기에는 자폐증과 비슷하지만 언어발달 지체장애 등 자폐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발달 장애는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환자들은 대부분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브린 역시 이 여성을 만나 "독특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며 활짝 웃었다. "2개국에 애인을 세 명이나 가지고 있는 여성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은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어떻게 한 번에 한 사람만 좋아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는데 과학이나 수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면서 "배우로 활약하는 브린과는 성격이 완전히 반대"라고 덧붙였다.

브린은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교적인 성격이지만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는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죠."

'인간 도서관'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자는 취지로 2000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열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리젤 놀라튼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옥외 광고판서 식수가 졸졸졸

고속도로에 설치된 광고판에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든다면 믿을 수 있을까.

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는 이같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광고업체 멘지니에 2명을 만났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페루과학기술대학(UTEC)과 협력해 광고판을 설치 중이다. 이르면 3월 리마 판아메리카나 수르 고속도로에서 세계 최초로 식수를 만들어내는 광고판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광고판의 구조는 간단하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필터를 장착해 공기 중의 습기를 압축한다. 모아진 물은 정화를 거쳐 탱크에 저장된다. 원격관리를 위해 무선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센서도 부착한다. 광고판에 넣을 그림도 구름 속 수증기가 정수기에 들어가 물로 뚝뚝 떨어지는 것으로 정했다.

엔지니어 호안 도날리사우와 알레한드로 이폰더는 "아직도 리마의 많은 가정이 수도 혜택을 받지 못해 물탱크 트럭에서 질 낮은 물을 사먹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이 광고판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광고판이 설치되면 하루 500ℓ의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루과학기술대학도 이번 프로젝트를 돕고 있다. 제사카 루이스 총장은 "리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사막도시"라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엔지니어들을 불러 나라극복프로젝트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리=이국명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마이클 잭슨 동상 모스크바 선다
- 휠체어 탄 장애인전용 해변 탄생
- 마오쩌둥 어깨에 올라탄 中 여성

KOSPI	2/1	2/4	2/5	2/6	2/7
	1957.79	1953.21	1938.18	1936.19	1931.77 (-4.42)

KOSDAQ	2/1	2/4	2/5	2/6	2/7
	503.31	501.37	495.16	502.56	501.78 (-0.78)

해외 지수	
Nikkei (일본)	11357.07 (-106.68)
Hang Seng (홍콩)	23177.00 (-79.93)
Shanghai (중국)	2418.53 (-15.95)
Dow Jones (미국)	13986.52 (+7.22)

EXCHANGE RATE	매매기준율 적용기
달러	1090.0
엔 (100)	1164.65
유로	1476.51
위안	174.84

올해도 '빨간내복' 못사드려요

새 일자리 30만개뿐…자영업 장업·中企 채용 등 줄어 15만개 감소

올해 새로 늘어날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8만~15만 개 정도 줄어든 30만 개 안팎으로 추정됐다. 이는 급격히 늘었던 자영업 분야의 창업이 경기침체 여파로 줄어들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 수는 2010년 32만3000명, 2011년 41만500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43만7000명에 달했다. 올해는 고용시장이 위축돼 한국은행은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 30만 명(1.2%)가량 늘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32만 명 증가를 예상했지만, 최근 경기 상황을 보고 하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KB투자증권 등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올해 고용 증가가 30만 명 안팎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28만 명 증가를 예상했다.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 분야에서 1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과 숙박·외식업 등에서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어 신규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5만 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진다 해도 지금 경기 분위기가 나빠 새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0만 개 감소한 33만 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고용이 늘거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 등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중소기업은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이미 지난해 중소기업 폐업과 도산 등으로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비자발적 이직자가 전년보다 9.4% 증가한 26만 명에 달했었다.

인크루트 오규덕 대표 컨설턴트는 "새 정부의 고용 확대 요구가 거세지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뽑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특히 경기에 민감한 중소·중견기업은 더 적게 뽑거나 아예 안 뽑겠다는 쪽이 많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설 문화체험하는 외국인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아이에프씨몰(IFC Mall)에서 외국인들이 떡을 썰고 있다. 아이에프씨몰 측은 "설을 맞이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외국인들에게 전통 설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月 기준금리 동결 유력

채권 전문가들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봤다.

7일 채권 전문가 10명 중 8명은 14일 열리는 2월 금통위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bp(bp=0.01%)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은 2명에 그쳤다. 다만 10명 가운데 6명은 한국은행이 올해에 최소 한 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봤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3월에 인하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3명이나 됐다. /김지성기자

설 하도급 대금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대금 158억원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명절 상여금이나 임금을 정상적으로 줄 수 없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0여 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119개 중소기업이 설 전에 158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지성기자

사과향 그대로 '영주 애플와인' 맛보세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카페 비투프로젝트에서 모델이 영주지역 특산물인 사과로 만든 영주 애플와인 '상떼마루'를 선보이고 있다. /영주와인 제공

편의점 주인들 협동조합 설립

"대기업 가맹본부 점주 분쟁해결 힘 보탤 것"

대기업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CU 가맹점주를 위주로 구성돼 있으나 다른 브랜드 편의점주는 물론 독립 편의점 사업자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맹본부와 상대할 만한 협상력을 갖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대기업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맹점주들의 입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CU 등 대기업 편의점 가맹점주 30여 명은 최근 서울시에 '전국 편의점 사업자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조합 측은 "서울시에서 설립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자본금 충당이 완료되는 이달 말 설립 등기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은 "최근 불공정한 계약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일이 많은데 점주들이 대기업인 가맹본부와 맞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돕는 일이나 가맹계약의 독소 조항을 개선하는 일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제껏 점주들은 과당경쟁, 불공정계약 등 열악한 환경에 시달려 왔다"며 "계약 공정화와 점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조합을 운영해 점주들에게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부동산임대 소득공제 이자율 0.6%P 인하

부동산임대 소득공제 이자율이 0.6%포인트 내린다. 월남전참전·납북자가족단체 기부금도 소득공제된다. 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10% 세액공제를 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자 소득도 생긴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주택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한테서 빌린 전세금, 월세 보증금 등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 이자율도 3.4%로 낮아진다.

기재부 김형돈 조세정책관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해 이자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침체를 고려해 주택법에 따라 착공이 연장된 부동산은 세법상 각종 불이익을 받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착공 연장 기간은 최초 착공 연장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국립대학치과병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어린이작업전공제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10개 단체가 추가된다. /김지성기자

소방관 여러분 홍초 드시고 힘내세요 대상 초청된 봉소가 설을 맞아 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소방서에서 명절에도 불철주야 근무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홍초 제품 1만 개를 전달하고 격려활동을 하고 있다. /대상 제공

덩치만 큰 국내증권사

4년새 자산 두배 늘어 269조원…수익성은 해외 IB의 6분의 1 수준

국내 증권사들이 지난 4년 동안 몸집만 키웠지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권사는 최근 3년 동안 수익성이 4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해외 IB의 수익성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증권 관계자들은 증권사의 경쟁력 강화를 외면한 지나친 규모 확장은 국가 경제에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자산 규모는 2008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로 커졌다. 작년 9월 말 국내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269조 7125억원으로 2008년 같은 시기의 141조1423억원보다 1.9배로 증가했다. 국내 은행(특수은행 제외)에 대한 증권사 자산 규모 비중은 12.1%에서 21.4%로 확대됐다.

증권사의 전체 자산 규모가 늘어난 것은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상증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형 IB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증권사가 IB 자격을 얻으려면 자기자본금을 3조원 이상 확보토록 했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의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은 2009 회계연도 2분기(7~9월)에 0.95%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0.21%로 급락했다. 해외 IB의 ROA도 2009년 1.98%에서 작년 1.32%로 줄었지만 작년 기준 ROA는 국내 증권사의 6배가 넘는다.

해외 IB와 국내 증권사 간 ROA 격차는 2009년 2.08배에서 작년 6.28배로 최근 3년간 점점 더 벌어져 왔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원은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투자은행의 무분별한 확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 연구원은 "국내 증권사를 대형 IB로 키우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재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대외 경제여건 올해도 불안

1월 고용·소비 등 부진

대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소비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대외 여건은 미국의 재정지출 자동삭감 유예가 이달 말 끝나는 데다가 유럽 경제의 회복이 지연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봤다.

국내 1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상승했고 전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12월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년 같은 달보다 0.2%포인트씩 하락했다.

12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1.1% 감소했고 업태별 판매도 백화점(−3.5%), 대형마트(−4.6%), 전문상품소매점(−0.2%), 무점포 판매(−1.3%)에서 모두 줄었다.

1월에도 소비, 광공업 생산, 투자 지표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 자동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하고,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설 연휴가 2월에 있기 때문이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IT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율 둔화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택배이용 1인당 月 10회

소비자 1명이 한 달에 10회 택배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택배를 이용해본 적 있는 20~5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1명당 한 달 평균 10.1상자의 택배를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8월 조사 결과(월평균 7.3상자)보다 38.3% 증가한 수치다. 피해 사례도 덩달아 늘었다. 응답자 중 25.6%(128명)가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이전에 비해 7.6%포인트 증가했다. /박성훈기자

어르신전용 실버 암보험 출시

라이나생명 10년 만기 상품

라이나생명보험이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원활한 가입을 위해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한 간편심사 상품이다. 61세에서 75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연령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최대 400만원을 보장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080-951-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희정기자

봄 봄 유행 예감 백팩 가수 겸 가방 브랜드 쌤소나이트 레드가 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쌤소나이트 레드 2013 S/S 시즌 론칭 이벤트를 실시해 사진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드디어 '돈 버는 기업' 지난해 첫 흑자 전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가 지난해 첫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0년 3월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선보인 이래 처음으로 연간 기준 플러스를 달성했다.

업계의 관심은 구체적인 액수에 쏠리고 있다. 카카오는 흑자 전환 여부와 흑자 규모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업계는 게임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수십억원 선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선보인 카카오 게임하기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한 계산이다. 카카오가 지난해 카카오페이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게임하기 매출액은 8월 47억원, 9월 138억원, 10월 400억원으로 석 달 동안 585억원을 기록했다.

기하급수적 상승 추세일 볼 때 11월과 12월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는 게임별 매출액의 20%를 가져간다는 점에서 상반기 손실을 감안해도 최소 수십억원대 흑자가 예상된다는 계산이다.

카카오의 흑자 전환은 무료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시각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성훈기자 zen@

주택연금 1월 신규가입 3배 껑충 653명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자식들에게 집을 물려주기보다는 노년 경제비로 집을 활용하겠다는 고령층의 인식이 확산된 덕분이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올해 1월 한 달간 653명(보증공급액 8997억원)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신규가입이 213건(보증공급액 3304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199.5% 지난해 12월(신규 가입 370건, 보증공급액 6067억원)보다는 76.5% 늘어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해결하려는 인식이 고령층에서 확산돼 주택연금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의 가입 자격 조건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만 60세 이상 부부'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된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2007년 7월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만2952명이 가입했다. /김지현기자

명절 알짜앱 덕에 가족 웃음꽃 활짝

기러기 아빠 시름 덜어주는 '0044무료국제전화'
"저분을 뭐라고 부르나" 호칭 헷갈릴땐 '패밀리맵'

가족 대화 단절의 주범'으로 몰리던 스마트폰이 이번 설을 맞아 '가족애 도우미'로 변신하고 있다.

통화료 걱정 없이 해외에 머무는 가족과 정을 나누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의 서먹함도 한 방에 날려준다. 가족애를 높일 수 있는 요리 레시피와 가족과 함께했던 추억도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손쉽게 나눌 수 있다.

◆해외에 가족이 있다면=명절이지만 비싼 국제통화료 때문에 해외 거주 자녀·친척에게 간단한 안부 인사만 하고 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0044무료국제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통화료 걱정 없이 마음껏 가족 친척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별도의 가입이나 기본료가 없고 이동통신사의 음성통신망을 그대로 이용해 통화 품질도 뛰어나다.

◆명절 예절도 챙기자=모처럼 친척들을 만났는데 호칭이 헷갈려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럴 때는 '패밀리맵' 앱이 유용하다. 그림 형식의 가계도로 친가·외가·처가·시가·처외가 친척의 호칭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가계도에 친척 사진을 등록하면 친척들 간의 관계가 더욱 한눈에 들어온다.

차례상을 차리는 것도 걱정 없다. 제사의 정석 '차례상차리기' 앱을 터치하면 그림을 통해 지방 쓰는 법에서부터 차례 순서까지 상세히 알려준다.

◆가족애 풍성 음식 만들자=갖가지 음식이 넘쳐나는 명절이지만 오랜만에 모인 가족·친척들에게 특별한 요리를 대접해 보면 어떨까. '쿡엔 스페셜요리' 앱은 명절 음식을 활용한 특식 레시피를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요리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요리사에 물어볼 수 있는 'Q&A' 코너도 유용하다.

감각적인 음식을 준비하려면 'CJ더키친 추천 레시피'가 제격이다. 한식·양식·일식·중식·퓨전·베이킹에 이르기까지 명절 분위기에 들뜬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요리법이 다양하게 들어있다.

◆명절 추억을 공유하자=오랜만에 가족·친척들과 보낸 즐거운 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필터카메라 포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카카오스토리로 찍은 사진을 바로 올릴 수 있어 편하다. 특히 70종의 사진 필터로 가족 친척들과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도 있다.

차례를 지내고 윷놀이를 즐기는 모습 등을 찍은 동영상은 '예쁜의 기무비' 앱 도움을 받으면 좋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환상적인 예고편 및 스릴 넘치는 뮤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다. 특히 만들어진 동영상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바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족·친지들의 사진으로 운세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푸딩얼굴운세' 앱은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을 찍어 입력하기만 하면 관상을 확인해 운세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아직 명절 선물로 운세 결과를 SNS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국현기자 lkh@metroseoul.co.kr

스노보드 영상 찰칵 맞춤형 캠코더 봇물

지난해 아웃도어 용품 시장 규모가 5조원으로 3년 만에 2배나 성장했다.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캠핑 문화'에 동참하는 인구는 어느덧 100만 명 이상이 됐다. IT 업계도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맞춰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한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설원의 스노보드에서 동영상을 담을 수 있다. 소니코리아의 '풀HD Wi-Fi 액션캠 HDR-AS15'는 90g의 초경량 초소형의 슈팅형 디자인으로 설계돼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것은 물론 몸에 부착해 촬영할 수도 있다.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손쉽게 영상을 녹화, 정지할 수 있는 대형 녹화버튼을 적용했다.

외부 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방진 기능과 함께 1.5m 높이에서 떨어져도 문제가 없는 충격 방지 기능까지 갖췄다.

겨울 등산이나 얼음을 타고 오르는 빙벽 등반과 같이 터프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긴다면, 떨어뜨리거나 부딪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수다.

2m 높이의 충격을 흡수하고 100kg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는 올림푸스의 'TG-1'이 대표적이다. F2.0의 밝은 렌즈를 탑재해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도 노이즈나 흔들림 없는 촬영이 가능하다. 또 초점거리 25~100mm(35mm 환산 기준) 광학 4배 줌을 지원해 풍광 사진을 담기에 적합하다.

야간 캠핑 시 후지필름 파인픽스 'XP30'이 제격이다.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을 통해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촬영지를 기록할 수 있어 유용하다.

방진 기능과 함께 영하 10도까지 견디는 방한 기능을 갖췄고 제품 전면에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발광다이오드(LED) 라이트 조명을 장착했다. /박성훈기자

스마트 음식 먹는 똑똑한 퍼비 완구업체 해즈브로코리아는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갤러리에 '퍼비 갤러리'를 오픈했다. '퍼비 갤러리'를 찾은 어린이들이 퍼비에게 스마트기기를 이용, 음식을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퍼비 갤러리'는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

빌 게이츠도 극찬한 '두잇 잉글리시'

유대인식 영어교육 프로그램 두산동아 최근론칭 인기몰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유대인식 영어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두산동아가 이스라엘 교육기업 타임투노우로부터 디지털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두잇 잉글리시'를 들여왔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미국·이스라엘·프랑스·싱가포르 등 교육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2011년 다보스포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가 "타임투노우는 교육업계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두잇 잉글리시'는 컴퓨터를 매개로 선생님과 최대 20여 명의 어린이가 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다만 한 명의 선생님이 1대1 과외를 하듯 여러 명의 아이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수업을 [illegible]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클래스를 나누긴 하지만 같은 클래스에서도 실력 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잇 잉글리시'는 같은 반에서도 3가지 레벨로 동시에 수업을 할 수 있고 컴퓨터가 수업 진도나 학생의 참여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밀착 학습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호기심을 자극해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한다는 점에서 학습 효과가 [illegible] 평이다. 애니메이션이나 노래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도입부에 배치했고 영어를 배우며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자연스레 접할 수 있다.

'두잇 잉글리시'는 소프트웨어인 만큼 기존 학원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다. 선생님 교육·설비 지원 등도 회사 측에서 해준다. 월 수강료는 20만원대다. /박성훈기자 zen@

SKT 착한기변 모델에 팬택 '베가넘버6' 추가

SK텔레콤은 7일 '착한기변' 프로그램 대상 모델에 팬택의 '베가 넘버6'를 추가했다.

착한기변은 SK텔레콤이 장기가입자에게 기기변경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로써 2월 착한기변 대상 모델은 아이폰5, 갤럭시S3, 갤럭시노트Ⅱ, 갤럭시팝, 베가 넘버6 등 총 5종이 됐다.

하나의 단말기를 18개월 이상 사용하고, 최근 3개월 통신청구요금이 평균 3만원 이상인 SK텔레콤 가입자는 착한기변 프로그램에 따라 27만원의 할인을 받고 이들 5가지 기기로 단말기를 바꿀 수 있다.

설맞이 경품 대잔치! 올레마켓 최신 무료게임!!

2월 8일 Open GAME

최신, 추천게임과 함께하는 올레마켓 경품파티

2013년 2월 8일 ~ 2013년 2월 22일

(KT스마트폰으로 올레마켓에서 아래의 최신 무료게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경품이벤트에 자동 응모 됩니다)

1 무림지존 (무료) SK 네트워크인터넷

'서로다른 특색을 가진 문파를 선택하여 무림을 장악하라!'

2 힐 더 플래닛 (무료) 피엔제이

'지루한 일상은 안드로메다로! 게임의 재미가 살아있네~'

3 진삼국지 (무료) 게임빌

'진정한 위/촉/오 세나라 유저간의 뜨거운 전쟁이 시작된다!'

4 드래곤 대 좀비 (무료) 터치터치

'드래곤 날리는 바로 이 맛, 아직도 몰라?'

5 홈런왕 for cacao (무료) 컴투스

'손끝에서 터지는 짜릿한 홈런! 컴투스홈런왕!'

새해 福 많이 받으시고
선물도 듬뿍 받아가세요!

차례상 물리고 삼촌·조카와 한판!

왼쪽 위부터 CJ E&M의 다함께 차차차, 위메이드의 윈드러너, 4:33의 활

'애니팡·캔디팡은 잊어라' 설연휴 달굴 모바일게임

단 세가지 조작만으로 짜릿한 스피드 '다함께 차차차'
친구 제치는 재미 쏠쏠 '윈드러너'·박진감 듬뿍 '활'

지난해 추석은 모바일게임이 대중화되는 획기적인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3000만 명이 넘어선 시점이었던 데다 1세대 모바일게임이라 할 수 있는 '애니팡', '캔디팡'과 같은 단순한 퍼즐게임이 쉽게 이용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설을 달굴 모바일게임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2월 초를 전후로 흥행에 성공한 게임일 가능성이 크다. 고향집에 갔는데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결혼, 취업 언제하느냐"고 묻는다면 스마트폰을 내밀며 "이 게임 해보셨어요?"라고 응수하자. 그날만큼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넷마블 '다함께 차차차'

CJ E&M 넷마블의 레이싱 액션게임 '다함께 차차차'는 차를 테마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다.

이 게임은 출시 후 2일 만에 인기게임 순위 1위에 올랐고 구글플레이에서도 인기 무료·신규 인기 무료·최고 매출 등 3개 부문의 1위를 1주일 안에 빠르게 동시 점령하는 등 역대 카카오 게임 중 가장 빠른 인기 상승세를 보였다.

'다함께 차차차'는 좌·우·점프 등 세 가지 조작만으로 모든 플레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쉽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가 다양한 자동차를 활용해 스피드감 상승에 따른 쾌감과 다이내믹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단순한 조작 외에 곰보를 쌓을 때마다 '차~', '침치', '쌍쾌치', '보리차', '국산차' 등 성우의 재미있는 음성 서비스가 묘한 쾌감과 몰입도를 선사한다.

◆위메이드 '윈드러너'

이 게임은 손가락 하나만으로 신나게 달리기를 할 수 있다.

숲, 모래사막 등 다양한 배경에서 달리는 캐릭터를 화면 터치로 점프시키며 장애물은 피하고 별은 획득함으로써 점수를 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게임을 보다 즐겁게 만들어줄 '소환수'와 '타는 펫'을 선택할 수 있다. 비행형과 지상형으로 구성된 '소환수'는 별 획득에 도움을 주고, '타는펫'은 점프력 증가, 획득 골드를 2배로 만들어주는 등 각기 다른 특수한 능력을 발휘한다.

맵을 달리면서 길가에 세워진 팻말을 통해 친구들이 달린 거리를 확인할 수 있고 역전한 친구 수에 따라 게임 내 각종 아이템 구입에 사용되는 보너스 골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쟁의 재미를 더했다.

◆4:33 '활'

네시삼십삼분이 선보인 액션 게임 '활'도 이번 설을 지배할 게임 중 하나다. 직접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분 내외의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즐길 수 있다. 틸트(가속 센서) 조작으로 사용자가 실제 활을 쏘는 듯한 긴장감을 느끼게 한 것이 매력이다.

또 카카오톡을 이용해 다른 게이머와 대전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무기로 자신의 캐릭터를 꾸미는 아바타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달 9일 출시 이래 각종 앱 장터에서 매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꽉꽉 막히는 차안에선…프로야구·우파루 마운틴·마이레스토랑 '강추'

이들 게임 외 다크호스로 떠오른 3개의 신작이 눈길을 끈다.

우선 넥슨의 야구 게임 '프로야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PvE(Player vs Environment) 모드인 '도전모드'에서 획득한 점수로 '카카오 게임하기'에 등록된 친구들과 순위 경쟁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 라인업 구성 시스템'을 통해 유저가 보유한 카드로 빠르고 간편하게 최강의 선수진을 구성할 수 있고, 유저 편의성을 고려한 직관적인 UI로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다.

NHN 한게임의 소셜네트워크게임(SNG)인 '우파루 마운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 농장류 및 경영 SNG와 달리 캐릭터 컬렉션에 초점을 맞춰 이색적인 캐릭터 성장과 조합 시스템을 선보이는 등 신선한 재미와 특징을 선사한다.

신비의 생명체 '우파루'를 소환해 속성에 맞는 서식지를 만들고 먹이를 줘 레벨을 올리는 방식이다. 레벨이 상승하면 외형도 변한다. 친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선물하기, 랭킹 시스템 등 캐릭터 컬렉션 SNG에 걸맞은 다양한 소셜 기능을 갖췄다.

컴투스의 레스토랑 경영 SNG '마이 레스토랑'은 유저가 세계 유명 레스토랑의 CEO가 돼 직접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내용의 게임이다.

서울, 리스비이거스, 파리, 베네치아 배경 중 유저가 한 곳을 선택해 레스토랑을 오픈한 후 다양한 음식 개발 및 150종의 아이템으로 특색 있는 레스토랑을 꾸밀 수 있어 유저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일정 시간마다 충전되는 소셜포인트를 사용해 친구 레스토랑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유저 간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게임 내 유저 커뮤니케이션 공간인 '마이 룸 시스템'을 통해 인사말을 남기고 무료 선물을 보낼 수 있다. /박성훈기자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제안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1.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

-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현재) 62.7% → 약 80% 수준('17년까지)
  ①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 — 보험료 하위 10% 의료비 부담 완화
  ②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100만원 씩 인하 등
  ③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 선택 진료 폐지, 병실차액, 간병 등 단계적 급여

2.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 (부과기준) 소득(소비)기준으로 단일화 → 직장·지역가입자 동일기준 적용
- (소비기준 건강보험재원 확보) 소비(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부과

3.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검진체계 구축
- 전 국민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국민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제공

4.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 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진료비 청구·심사·지급 등 보험자 기능 회복
- 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보험자의 사후관리 역할 강화

5. 노인 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 수혜대상자 확대 — 수혜자 비율 (현) 5.7% → ('17년) 9.5%
- 인정유효기간 연장
  ※연속 2회 1등급(2년) → 연속 2회 1·2등급(3년)
  ※연속 3회 이상 같은 등급(2년) → 연속 2회 이상 3등급 또는 등급 상향(2년)
- 혼합형 복합케어(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치매 지원 등 모델 다양화
- 방문간호 이용 확대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신발 삼총사' 앞세워 종합 패션기업 점프

풋웨어 시장 도전 진두지휘하는 도영우 세정그룹 스포츠사업부 이사

"세정의 강력한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6년까지 뉴발란스를 잡겠습니다."

세정의 스포츠사업부 도영우 이사는 올해 새롭게 도전하는 신발 사업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토종 패션업체 세정그룹은 스포츠사업부를 출범, 써코니·캐터필라·고라이트 등 3개 미국 슈즈 브랜드를 전개하며 신발 사업에 도전한다. 의류뿐 아니라 신발로 사업 영역을 넓혀 글로벌 종합패션기업으로 입지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끄는 스포츠사업부의 수장은 국내에 처음으로 써코니와 캐터필라 제품을 소개한 이지스포츠 출신의 도영우 이사가 맡았다. 도 이사는 1989년 코오롱상사 신발 MD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신발을 다뤄온 '신발 전문가'다.

"스포츠는 아웃도어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입니다. 특히 스포츠는 '신발'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라 글로벌 브랜드의 기술력이 필요하죠. 이번 신발 사업은 40년 넘게 옷을 만들어 온 세정을 짧은 시간에 글로벌 종합패션기업으로 키울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생소한 써코니는 미국 러닝화 시장 1위를 차지하는 러닝화 브랜드. 써코니 오리지널스의 경우 편안한 착화감과 개성 있는 컬러로 국내 젊은층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美러닝화 1위 '써코니' 등 3개 브랜드 수입판매
후년엔 의류 라인업 추가 2000억원대 매출 자신

"올해는 써코니의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는 데 주력하고, 내년엔 백화점 매장을 통해 유통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5년엔 의류 라인업을 추가해 국내 시장에서 뉴발란스를 넘어서는 2000억원대 메이저 스포츠 브랜드로 키우겠습니다."

워커·부츠·스타일리시한 캐주얼 풋웨어 등 다양한 라인을 갖추고 있는 캐터필라는 콘셉트숍을 통해 신발·의류·용품까지 전개하면서 라이프스타일까지 재연할 예정이다.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고라이트는 단순한 등산화에서 벗어나 어떠한 오프로드 활동에도 적합한 전문 신발을 고루 갖추고 있다. 현재 지난해 론칭한 아웃도어 브랜드 센터폴 매장에서 판매 중인데 반응이 아주 좋다.

도 이사는 올해를 세정의 새 도약의 해라고 강조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언제나 위기는 기회라는 것. 이런 때일수록 실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스포츠사업부 출범은 세정이 그동안 해보지 않은 영역을 개척하고 도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세정의 슈즈 브랜드를 '국민 브랜드'로 만들고, 토종업체 세정을 글로벌 패션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서지원기자 사진/이광열기자

sjw@metroseoul.co.kr

■ 써코니 '커레이저스(Courageous)' – 클래식 러닝화. 쿠셔닝이 뛰어나 하루 종일 신어도 발이 편안하다. 갑피에 메시·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해 감각적이다. 9만원대.

■ 고라이트 '라임 라이트(Lime Lite)' – 안정적인 접지력으로 트레킹·워킹·하이킹 등 야외활동 시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방수 기능의 누벅 가죽을 써 고급스럽다. 17만원대.

■ 캐터필라 '코드(Code)' – 60년대 감성을 바탕으로 만든 어번 캐주얼 라인. 심플한 디자인과 복고적인(레트로풍) 디자인이 돋보인다. 12만원대.

스니커즈 편집숍 '스틸레 디 마또' 신세계 강남점 입점

국내 최초 프리미엄 스니커즈 편집숍 '스틸레 디 마또'가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 문을 열었다.

편집숍에서는 제시카·파치오티가 론칭한 브랜드 포어스를 비롯해 로베르토 까발리·존 갈리아노·알레산드로 델라쿠아·존 리치몬드·미또 등 20만~60만원대 감각적인 해외 명품 스니커즈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

스틸레 디 마또는 오픈 기념으로 11일까지 전 제품을 10% 할인한다. 또 이 기간 직화 고객 모두에게 미니 구두헤라를, 30만원 이상 구매 시 미니 클러치를 증정한다.

"한·중에 통하는 매운맛" K-푸드, 입맛 사로잡다

125년 소스 제조업체 '이금기' 홍콩서 대학생 중화요리 대회

맛난 요리는 사람의 마음까지 이어주는 법이다. 중국인과 한국인의 입맛을 모두 감동시킬 중화요리 메뉴는 없을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중화요리 실력을 홍콩 현지에서 뽐내며 해답을 찾았다.

지난달 31일 홍콩 툭쿨란 지역에 위치한 명문 요리학교인 홍콩중화주예학원(CCTI)에서 '2012 이금기 대학생 중화요리 대회'의 결승전이 열렸다. 지난해 6~11월 전국 40개 대학에서 응모한 500여 명 중 예·본선을 거쳐 최종 선발된 10명이 경연을 치렀다.

대회를 주최한 이금기는 125년 전통의 세계적 소스 제조업체다. 우리가 흔히 짜장면의 감칠맛 하면 떠오르는 맛인 굴소스가 대표 상품이다. 우리나라에는 오뚜기가 10여 종의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이금기는 국적은 물론 양식·중식·일식·한식을 넘나들며 다양한 요리에 이금기 소스가 들어가도록 시도하고 있다. 피자까지도 굴소스와 만났다. 미국 캘리포니아 한 식당에서는 '굴소스(오이스터소스) 피자'가 팔린다. 지난해 일본 NHK는 인도 커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소스 1위로 이금기 굴소스를 꼽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일부 이탈리아 레스토랑 또한 '굴소스 파스타' 메뉴를 앞세우는 중이다.

굴소스뿐만이 아니다. 이금기 두반장 소스의 경우 최근 서울 홍대의 한 라면 체인점의 새로운 메뉴로 등장하며 인기를 끌었다.

'2012 이금기 대학생 중화요리 대회'의 참가 학생들이 대회 종료 후 한 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청파인상'을 차지한 홍진재(우송대 조리학과) 학생의 작품. /이금기 제공

이금기 소스를 활용한 학생 창작요리대회 또한 일본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등 주변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내년에는 한·중·일·홍콩 학생이 함께 모인 경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대회에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참여한 대학생들은 홍콩 현지의 재료로 중화요리에 도전한다는 데 들떠 있었다.

한식·양식 전공의 참가자들은 '중화요리의 세계화'에 걸맞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한국 중화요리협회 여경래 회장, 푸드 앤 컬처 김수진 원장, 신라호텔의 장금승 셰프와 홍콩 이금기 본사의 레이몬드 제 상무 등이 날카로운 심사평을 쏟아냈다.

1위인 '챔피언 상'은 굴소스와 고추마늘소스로 맛을 낸 훈제 랍스터와 과일 살사를 만든 홍진여(우송대)씨에게 돌아갔다. 한국인과 중국인 입맛에 두루 통하는 보편적인 매운맛 개발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금기 컨설턴트 셰프이자 이번 대회를 제안한 여경래 협회장은 "한국 학생들은 안정되고 뛰어난 맛과 아름다운 프리젠테이션으로 세계 중화요리협회 관계자들에게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K-팝으로 한류 열풍이 일어난 가운데 한식에 대한 관심을 돋이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홍콩=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장수 비결? 도덕경영과 장인정신이죠"

'이금기' 이혜중 회장

"소스 하나만으로 125년이 넘는 기업의 전통을 이어올 수 있는 원동력은 철저한 도덕경영과 장인정신입니다."

세계 최대 소스 전문업체인 이금기의 이혜중(영어명 찰리 리) 회장은 지난달 31일 홍콩 현지에서 메트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1888년 설립 후 현재 오대륙 100여 개 나라에서 하루 80만 병 이상 팔리는 기업으로 성장한 저력에 대해 이처럼 설명했다.

강산이 12번 넘게 바뀌는 긴 세월 속에서도 이금기가 굳건한 성장을 지속하는 비결로는 이금기 특유의 '가족운영협의체(Family Council)' 문화를 꼽았다.

이금기 이혜중 회장이 ... 새로운 굴소스를 손에 들고 이금기의 역사와 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금상 초대회장의 4대손인 이 회장은 "도덕성과 비즈니스적 경영능력을 통과한 가족 구성원이 최고경영진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혈육이더라도 이금기 경영에 참여하려면 타 기업에서 최소 3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한다. 또 계열사인 건강식품그룹 '인피니투스'에서 비즈니스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금기의 경영체계는 소스 단 하나의 품종으로 시장에서 승부하려는 장인정신에서 비롯됐다. 이 회장은 "중국 5000년 역사의 요리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고집으로 이금기는 연간 10조원 넘게 글로벌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금기의 소스 종류는 300종, 전체 제품 수는 3000가에 달한다. 이 회장은 "중국 역사상 모범적인 최고 기업으로 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김현정기자

개비스콘 "소방관님들 힘 내세요"

한달간 온라인 캠페인…1만명 마음 담은 기부금 전달

개비스콘 더블액션이 소방관 응원 캠페인 기부금을 7일 소방공제회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 전달은 지난 한 달간 진행된 '개비스콘이 소방관을 응원합니다'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이뤄졌다. 소방관을 응원하는 1만여 명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 전액은 개비스콘에서 마련했다. 또한 기부금은 소방관 응원 캠페인에 참여한 1만1988명의 이름으로 전달됐다.

회사 관계자는 "가슴쓰림과 소화불량을 동시에 완화한다는 의미로 두 명의 소방관 캐릭터를 활용해 광고를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이 소방관 캐릭터를 기억해주셔서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앞으로도 소방관을 응원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부금을 전달받은 소방공제회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소방관들이 몸바쳐 화재를 진압하고 그 과정에 희생도 있지만, 순직 소방관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마음을 받은 일선 소방관들도 힘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화불량·가슴쓰림 동시 개선

지난해 10월 출시된 '개비스콘 더블액션'은 소화불량과 가슴쓰림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반의약품이다. 고유 현탁액을 복용 후 3분 만에 위산 역류를 억제하고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시켜주도록 했다.

가슴쓰림의 증상(위산 역류)은 일반적으로 인후통과 흉통으로 나타난다. 쓴맛이나 위산의 맛이 느껴지기도 한다. 소화불량의 경우 가슴 또는 위의 윗부분이 통증이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은 속이 더부룩하고 속에 가스가 차는 느낌을 토로한다.

또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구토 증상이 있으며 식욕이 없어질 수도 있다. 가슴쓰림과 소화불량을 구분하려면 누웠을 때나 몸을 구부렸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확인해보면 된다. 만약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가슴쓰림일 확률이 높다.

가슴쓰림과 소화불량은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과식을 하면 위에서 많은 위산을 분비하게 된다. 또 초콜릿과 민트(박하)같은 식품은 위 괄약근을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위산이 역류하게 한다. 매운 음식, 양파, 토마토도 자극(원인)이 될 수 있다.

/김민지기자

소방관 여러분 힘내세요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소방공제회관에서 '개비스콘이 소방관을 응원합니다'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기부금을 소방공제회에 전달했다. 기부금 전액은 개비스콘에서 지원하고 행사에 참여한 1만1988명의 이름으로 기부한다. 사진은 소방공제회 변상호(왼쪽) 이사장, 개비스콘 마케팅 매니저 이지민 부장.

고향가기 전 엔진·브레이크 체크를

평소보다 장거리를 운전하는 설 연휴엔 차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불스원 R&D센터의 홍종인 연구원은 "설 연휴에 승용차로 고향에 다녀오려면 엔진·브레이크 등을 철저히 체크하고, 한파나 폭설에 대비해 안전용품도 비치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은 추운 날씨에 과부하에 걸려 고장 나기 쉽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엔진오일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오일양이 부족하면 보충해주고 필요하다면 교환을 해주는 게 좋다.

또 연료 주입구에 넣는 연료시스템 클리너를 사용해 연료가 소모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카본 때(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카본 때는 엔진의 효율과 출력을 떨어뜨린다. 엔진코팅제를 사용하면 엔진 마모 현상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엔진 소음도 줄여든다.

스타키코리아 中 흑룡강성 감사패 받아

국내 보청기 판매 1위 스타키코리아가 중국에 보청기를 기증한 공로로 중국 흑룡강성 장애인연합회의 감사패를 받았다.

고소봉 중국 농인협회 주석은 "자국을 넘어 이웃 나라인 중국 장애인에게 사랑과 헌신을 베푼 스타키코리아 측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두 나라의 청각장애인을 위해 꾸준한 협력을 지속하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스키장서 피부를 지켜라

여름 백사장보다 4배 이상 자외선… 눈 건강 상할수도

올해는 짧은 설 연휴 탓에 먼 고향길보다 스키장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들뜬 마음에 무작정 스키장에 갔다가는 강한 자외선에 피부는 물론 눈 건강까지 상할 수 있다.

다른 계절에 비해 햇빛이 약한 겨울철이지만 스키장은 예외다. 햇빛이 눈에 반사돼 한여름 백사장보다 4배 이상의 자외선을 받게 된다. 아큐브 관계자는 "보호 안경 없이 스키를 타면 쉽게 눈이 부시고 따갑다"면서 "고글과 각막을 덮는 콘택트렌즈를 함께 착용하면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원데이 아큐브® 의 전 제품은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장시간 야외 활동에도 안심할 수 있다. 특히 원데이 아큐브 트루아이®의 경우 UVB는 99%, UVA는 90% 이상 차단해 눈 건강을 지켜준다.

◆자외선에 상한 피부엔 보습

스키장의 강한 자외선은 기미·잡티 등의 주범으로 슬로프에 나서기 전 얼굴·목·손 등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야 한다. 피지선이 없어 쉽게 건조해지는 입술에는 립밤을 바르는 게 좋다.

스킨케어 브랜드 숨레브의 '익스퍼테이션 데일리 썬 프로텍션'은 자외선 차단지수(SPF43/PA+++)는 높으면서 산뜻하게 흡수된다. 미네랄 필터 성분을 사용해 피부 자극이 적고, 동백꽃 추출물이 피부에 윤기를 더해준다. 헤라의 'UV 미스트 쿠션'은 자외선 차단(SPF 50+/PA+++)은 물론 수분 미스트, 미백, 쿨링, 메이크업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원스텝 제품. 미네랄 글레이 워터를 함유해 자외선으로 건조해진 피부에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치지 않는다.

숨레브의 브랜드 매니저 정혜원 대리는 "겨울철 피부는 이미 민감해져 있는 상태라 약한 자극에도 손상되기 쉽다"면서 "스키장에서는 꼼꼼한 자외선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체크무늬 모방이라니"

LG패션 버버리에 맞소송… "강력 대응할 것"

LG패션이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영국 패션 브랜드 버버리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내 업체 LG패션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을 낸 버버리에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7일 밝혔다.

버버리는 지난 4일 LG패션 브랜드 닥스가 자사 등록상표인 체크무늬를 모방했다며 체크무늬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LG패션 관계자는 "체크무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 전 세계 패션 브랜드 제품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를 갖고 상표권 침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악의가 있는 영업방해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닥스가 자사를 모방했다는 버버리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닥스는 119년 전통의 영국 브랜드로 국내시장에서 30년 이상 성공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닥스 고유의 체크무늬를 사용한 가방·지갑 등의 제품은 영국 본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고 반박했다.

LG패션의 한 관계자는 "버버리는 이전에도 국내 패션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다"며 "국내 업계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버리는 지난 2006년 제일모직에도 체크무늬 도용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닥스

버버리

니콘 카메라가 반값!

쿠팡 '꽃 보다 선물' 기획전

쿠팡이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꽃보다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

남성 슈트 30여종을 7만9000~10만9000원에, 티쏘와 아르마니의 시계를 30% 이상 할인해 판다. 초슬림 노트북 HP 파빌리온14 코어 i3는 20% 할인된 59만9000원에 내놓는다. 어더생들을 겨냥한 콤팩트 카메라 니콘 쿨픽스 S2600이 반값 이상 저렴한 8만9000원에 판매된다. 마스카라와 메이크업 브러시를 각각 1만2000원과 1만7500원에 선보인다. 문의 www.coupang.com

베일리스 메일하우스' 이벤트

아이리시 크림 리큐르 베일리스가 서울 여의도 IFC몰에 '베일리스 메일하우스(Baileys Mail house)'를 오는 25일까지 열고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통과 공감을 중요시하는 여성들의 감성을 고려해 우민 공간으로 엽서 디자인을 골라 글을 작성하면 우편으로 배달해주고 따로 마련한 선물도 제공한다. 매일 선착순 100명씩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평일(월~금요일) 오후 5~10시, 주말 오후 1~10시 운영된다.

롯데월드 설날 큰잔치

롯데월드가 8~11일 '2013 설날 큰잔치'를 벌인다.

매일 가든 스테이지에서 설 특집 공연 '까치까치 설날'을 진행하고, 연기자와 관객이 함께 초대형 박을 터뜨리며 새해 복을 기원한다. 제기차기, 윷놀이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민속놀이 한마당'도 연휴 내내 이어진다.

레뱅드매일 로맨틱 패키지

와인수입업체 레뱅드매일이 말바시아 스위트 화이트 루비갈리아와 페레로로쉐 초콜릿으로 구성한 발렌타인 로맨틱 패키지를 선보였다.

말바시아 스위트 화이트 루비갈리아는 샤르마 방식으로 양조한 스위트 스파클링 와인으로 자스민 꽃, 귤 등 신선한 향과 함께 단맛을 상쇄시키는 약간의 산도가 있어 부드럽다. 가격은 4만5000원. 문의 (02)3497-6888

LG유플러스 회원에 '스무디킹 더블 업'

스무디킹코리아가 2월 한 달간 다양한 제휴 행사를 진행한다.

28일까지 LG유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스무디킹 더블 업' 행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 LG유플러스 멤버십 카드를 소지한 고객에게는 기존의 사이즈 업그레이드 외에 '인핸서(기능성 첨가 파우더)'를 무료로 넣어준다.

또한 21일까지 옥션과 G마켓에서 진행되는 '이베이 코리아 신학기 스타일 기획전'에 참여, 베스트 7 스무디와 따뜻한 과일차 리얼후르츠티 복가 모바일 티켓을 판매한다. 행사 제품은 스트로베리 익스트림, 레몬트위스트, 스트로베리 오렌지 러블루션 등 스무디킹 인기 스무디 베스트 7종과 블루베리 레몬티, 애플시나몬티 등 리얼후르츠티 4종이다.

30쌍 커플에 스파 이용권

웅진플레이도시 밸런타인데이 프러포즈 행사

종합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커플권을 선보이고 페이스북 프러포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1995년생 이상의 커플들을 위해 1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커플권을 12일부터 17일까지 한정으로 선보인다.

또한 11일까지 프러포즈 이벤트도 실시한다. 웅진플레이도시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wjplaydoci)에 프러포즈 사연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30쌍 커플에게 워터파크&스파 이용권을 준다. 두 커플에게는 풀코스로 데이트할 수 있도록 워터파크&스파 이용권과 럭스필드 다이닝 식사권을 선물한다.

'럭스필드 다이닝'은 웅진플레이도시 1층에 위치한 정통 스테이크&퓨전 요리 레스토랑으로 특별한 날 데이트 코스로 제격이다. 문의 www.playdoci.com 1577-5773

/박지원기자

감기는 비타민으로 과식땐 소화제로

대웅제약 '씨콜드 정'·'베아제' 눈길

올해 명절은 무엇보다 건강 관리가 중요해졌다. 이번 겨울 최고의 한파 속에 고향 길을 오가는 동안 감기에 걸려 고생할 수 있어서다. 또한 명절 때는 과식으로 체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소화제가 필수다.

최근까지 이어진 매서운 강추위로 주변에 기침·콧물 감기 환자들이 많아졌다. 감기는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빨리 해야 치료 효과가 높다.

감기에 걸리면 바이러스와 싸우는 백혈구 속의 비타민 C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평소 권장량보다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한다.

대웅제약에서 발매된 '씨콜드 정'에 함유된 비타민 C 500mg은 감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하루 필요량의 비타민 C를 담았다. 사과 35개, 귤 9개, 레몬 7개를 먹어야 섭취가 가능한 양이다. 이 제품은 비타민 C를 함유한 증상별 맞춤 감기약으로 증상 완화와 2차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준다.

아세트아미노펜, 슈도에페드린 등 감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다양한 성분과 1일 500mg의 비타민 C를 함유해 바이러스는 약화시키고 면역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타민 B1,B6,C
감기약

또 비타민 C는 감기로 인한 두통, 발열, 구토, 목 가슴 통증, 콧물 등의 증상을 줄여준다. '씨콜드 정'은 종합감기약 '씨콜드 정', 코감기약 '씨콜드 노즈 정', 기침감기약 '씨콜드 코프 정' 등 증상에 따라 3가지 종류가 있어 선택해 복용할 수 있다.

◆ 소화제 선택 어떻게

어떤 음식을 먹고 체했느냐에 따라서 그에 알맞은 소화제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탄수화물은 입·장에서, 단백질은 위·장에서, 지방은 장에서 소화작용이 주로 일어난다. 따라서 소화제를 선택할 때에는 위와 장에서 작용하는 소화효소가 모두 함유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일부 소화제는 장에서만 소화되는 장용정 제품도 있어 성분을 잘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소화제는 '장용코팅정', '다층혼합정제' 등 제형에 따라 약효 발현 시간이나 효과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장용정'은 정제 전체가 위에서 녹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 소화작용을 나타내 약효 발현시간이 늦으며, 장에서만 소화작용을 나타낸다. 대표적으로 한독약품의 훼스탈 플러스가 있다.

'다층혼합정제'는 위와 장에서 작용하는 성분을 여러 층으로 혼합한 형태다. 위에서 작용하는 성분은 먼저 위에서 작용하고, 장에서 작용하는 성분은 위에서부터 음식물과 골고루 섞인 후 장으로 이동한다. 또 한번 소화작용을 발휘하므로 약효가 빠르다.

대표적으로 대웅제약의 베아제, 닥터베아제가 있다. 현대인의 서구화된 식습관에 맞춘 프리미엄 소화제인 닥터베아제는 주식인 탄수화물의 소화효소를 강화하고, 육류 섭취가 많은 식습관에 맞춰 단백질 소화효소인 브로멜라인, 지방 소화를 강화하는 성분을 보강했다. /김민지기자

전 부칠땐 허리·목 꼿꼿이

주부 명절 건강관리법

설거지, 무릎 싱크대에 '바짝'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차례상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주부들은 반갑지만은 않다. 평소보다 강도 높은 가사일을 하게 돼서다. 이럴 경우 주부들은 손목과 허리 통증, 어깨·무릎관절에 이상을 호소하는 '명절증후군'에 시달리게 된다.

주부들이 가장 많이 통증을 느끼는 부위 중 하나는 '손목'이다. 초기 증상의 경우 뜨거운 수건이나 핫팩을 사용해 통증 부위에 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손가락을 쥐었다 펴거나 주먹을 쥐기 힘들어질 경우에는 병원을 내방해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주부들은 차례음식을 준비하거나 손님 접대를 위해 장시간 쪼그려 앉아있거나 한 자세로 서 있게 된다. 이러한 고정된 자세는 디스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부족하게 하고, 허리 통증이나 허리디스크 등의 척추질환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전을 부칠 때는 의자에 앉아서 허리나 목을 꼿꼿하게 펴는 것이 좋다. 설거지할 때에는 무릎을 최대한 싱크대에 붙이는 것이 좋고, 중간중간에 발뒤꿈치를 살짝 올려주는 게 허리나 무릎관절에 부담을 덜 주게 된다.

바로병원 이철우 병원장은 "명절 후에 나타나는 통증은 무리한 가사노동으로 인해 단순한 근육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관절이나 근육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아빠와 놀이 우뇌 발달"

뉴캐슬대 가족연구센터 "감정통제 방법 배우는 데 큰 역할"

요즘 아빠와 아이의 여행을 다룬 MBC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가 인기다. 단순한 재미뿐만 아니라 아빠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아이들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까지 전달한다.

실제로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가 아이 우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호주 뉴캐슬대학 가족연구센터는 엄마와 하는 규칙이 일정한 놀이와 달리 아빠와 하는 불규칙적인 놀이가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흥분을 줘 아이가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다. 아빠와의 놀이는 팔과 다리를 사용한 활동적인 놀이가 많다. 대근육을 사용한 신체활동은 우측 대뇌를 자극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8세 이전 우뇌가 발달하는 시기에는 엄마와의 놀이보다는 아빠와의 놀이가 좋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사람의 두뇌 개발은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맞게 두뇌 발달을 한다. 8세를 기준으로 취학 전에는 우뇌가, 취학 후에는 좌뇌가 왕성하게 발달한다. 우뇌가 발달해야 할 시기에 좌뇌가 발달하거나 좌뇌가 발달할 시기에 우뇌가 발달하게 되면 좌뇌와 우뇌의 교류가 부족해진다. 한쪽 뇌가 다른 쪽 뇌보다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세상에 대한 이해도와 반응은 떨어지며 아이는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뇌균형 운동치료센터 밸런스브레인 변기원 원장은 "3세 전의 아이들은 우뇌를 많이 자극해주는 것이 좋다"며 "적합한 시기에 두뇌 발달이 하지 않았을 경우 뇌 불균형을 초래해 심해질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학습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mnjl@metroseoul.co.kr

액션 느끼려면 다이하드5 코믹 즐기려면 남쪽으로 튀어

극장가 골라보는 재미

올 설 연휴는 예년보다 짧다. '빨간 날'인 오매불망 바라보고 사는 직장인들로선 정말 아쉽고 원통할 따름이다. 빠듯한 휴일에 호주머니 사정도 넉넉하지 않은 요즘, 그나마 마음 편히 갈 만한 데는 역시 극장뿐이다. 액션·코미디·애니메이션·아트 를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한 차례상만큼이나 푸짐해서 다행이다.

▶ **때리고 부숴라** – 남북의 정예 첩보원들이 독한 베를린에서 얽히고 설키는 '베를린'과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다이하드' 시리즈의 5편 '굿데이 투 다이'는 쓸데없이 잔인한 장면이 거의 없어 가족이 함께 봐도 무방하다.

'베를린'은 하정우·한석규·류승범이 합작한 한국적인 총기 액션과 맨몸 혈투가 일품이고, '굿데이 투 다이'는 민머리 액션스타의 원조 브루스 윌리스가 러시아로 가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도 건재를 과시한다. 두 작품의 무대인 유럽의 고풍스러운 풍광도 또 다른 볼거리다.

▶ **웃자 웃어** – 코미디들의 대결 구도는 한국 영화들끼리의 삼파전으로 압축된다. 딸바보 아빠의 눈물겨운 사랑을 신파조로 얘기하는 '7번방의 선물'과 한 가족의 대책 없는 반체도권 투쟁기를 코믹하게 다룬 '남쪽으로 튀어', 박수가 된 건달의 요절복통 무당 생활기를 그린 '박수건달' 모두 웃음과 감동을 7대 3의 비율로 섞었다. 큰 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웃음은 얻어갈 수 있지만 웃음에 무게를 둔다면 '박수건달'과 '남쪽으로 튀어'를, 눈물에 더 끌린다면 '7번방의 선물'을 각각 권한다.

▶ **동화와 상상의 나라로 가볼까** – 안데르센의 동화가 원작인 '눈의 여왕'에선 과속스캔들' '늑대소년'의 박보영과 인기 개그맨 이수근이 눈의 여왕에 맞서는 소녀 '를다'와 수다쟁이 트롤의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몬스터 주식회사 3D'는 애니메이션의 명가 디즈니·픽사가 2001년 선보여 큰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춰 3D 효과를 새로 가미했다. 덕분에 괴물 설리의 보드라운 털이 손에 잡힐 듯이 휘날리는 모습은 더욱 생생해졌다. '파라노만'은 미네 좀비 유령보다 무서운 인간들의 편견과 야만성을 꼬집어 주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다. 이야기가 다소 어두워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탓에 유아 자녀는 함께 보기 어렵다.

▶ **예술의 그윽한 향기 속으로** –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과 황금카메라상을 각각 받은 '아무르'와 '비스트'는 사필적인 명절일수록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적당하다. '아무르'는 노부부의 가슴 아픈 사랑과 이별을 담담하게 읊조리고, '비스트'는 남극 외딴섬에 사는 한 소녀의 성장 모험기를 환상적으로 묘사한다. 이 밖에 뮤지컬 영화로 각종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레미제라블'도 설 연휴를 관통하므로 아직 못 본 사람들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정글 간 아이들·힐링 밥상… 뭘 볼까

방송가 특집 프로그램 풍성

연기 프로그램 스핀오프 시리즈부터 건강과 '힐링'에 부쩍 관심이 높아진 현대인을 공략한 프로그램까지 지상파 3사의 설 연휴 특집방송은 풍성하다.

◆**아이돌 대격돌**

MBC의 대표 명절 특집 프로그램인 아이돌 체육대회가 올해는 양궁을 추가해 '아이돌 육상 양궁 선수권 대회'로 꾸려졌다. 새로운 능한 150여 명의 아이돌이 소속사별로 팀을 나누어 70M 달리기, 허들, 400M 계주 등 육상 종목과 양궁으로 승부를 겨룬다. 11일 오후 5시.

KBS에서는 '대결 아이돌 가요무대'가 꾸려진다. 방송인 서경석과 이지애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포미닛·씨스타 등 아이돌 그룹 12팀 총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트로트 레퍼토리 대결을 펼친다. 11일 오후 9시40분.

◆**도시 떠나 정글·시골로 간 아이들**

SBS는 지난해 추석 특집 시청률 1위를 차지한 '정글의 법칙 W'에 이어 '정글의 법칙 K(키즈)'를 준비했다. '스타주니어쇼 붕어빵'에 출연 중인 개그맨 이정용과 아들 말음, 엄경환과 아들 은률, 조혜련과 아들 우주 등이 출연하는 특별판은 도시 아이들의 정리린 오지 섬 생활 적응기를 사실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11일 오후 6시.

MBC '일밤'의 최고 인기 코너인 '아빠 어디가'의 스핀오프 9일 오후 8시40분 '아빠! 어디가? 아빠 총출동'을 통해 성동일·김성주·윤민수 등 다섯 아빠들이 자녀와 시골 마을을 여행하는 동안 겪었던 미공개 에피소드를 낱낱이 공개한다. 10일에는 춘천호로 떠난 아이들이 음식 장만을 위해 심부름에 나서는 6회가 방송되며, 11일에는 '아빠 어디가 스페셜'이 오전 10시55분 편성을 확정했다.

◆**영혼의 밥상 vs 실험의 밥상**

제주도에서 촬영을 진행한 MBC '내 영혼의 밥상'은 버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선물하는 힐링 푸드 버라이어티다. 이경규·이수근·노홍철·강소라 등 MC진이 음식에 얽힌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아 직접 상을 차리고 배달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경규의 MBC 복귀는 4년 만이다. 11일 오후 8시50분.

SBS는 김혜수·이휘재가 진행하는 '공탐석의 식사하셨어요?'를 선보인다.

치유와 소통을 주제로 상처받은 가족들에게 MC들이 직접 밥상을 차려 선물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끼·풀·나무 등 주변에서 직접 채취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돌 깨진 기왓장 등 투박한 식기에 올려 차린 염지호식 밥상과 김혜수의 숨은 요리 실력이 공개될 예정이다. 8일 오후 11시25분.

/권보람기자 kwon@

뮤지컬 할인 행사 '팍팍'

설 연휴를 맞아 가족·친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풍성하다. 설 할인 이벤트까지 준비돼 있어 일석이조다.

뮤지컬 '아이다'(디큐브아트센터)는 팝의 거장 엘튼 존과 뮤지컬 음악의 전설 팀 라이스가 탄생시킨 브로드웨이 히트작이다. 11일까지 열리는 공연에 한해 VIP·R석은 20%, S·A석은 30% 할인한다.

국내에서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연이은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25주년 기념 내한 공연(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은 이번 연휴를 이용하면 20% 할인된 가격에 볼 수 있다.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루)는 전쟁터에서 싹 트는 남한군과 북한군의 우정을 그려 뭉클한 감동을 전해준다. 8·9·12일 공연에 한해 티켓 가격의 30%를 할인해 준다.

겨울공주 평강이야기'(SH아트홀)는 누구든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교훈을 전해주는 아카펠라 뮤지컬이다. 13일까지 휴대기기로 가족사진을 찍어 보내면 반값에 관람이 가능하다.

이 밖에 넌버벌 퍼포먼스 '비밥'(비밥 전용관)도 전 세계 대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비트박스·비보잉·아카펠라로 신나고 재미있게 표현해 설날 문화 나들이로 안성맞춤이다. 3인 이상 가족이라면 반값에 구매가 가능하다.

/박진영기자 tuk0427@

비밥

아이다

'고기파' 에일리… '채소주스' 정소민…

89년생 동갑내기 스타 몸보신 건강관리 비결

설날 온 가족이 모여 나누는 덕담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건강에 대한 기원이다. 계사년을 맞아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라는 트로트 가사처럼,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해 89년생 동갑내기 뱀띠 스타들의 숨겨둔 몸보신 비결을 공개한다.

▲에일리 – 탄수화물 줄이고 고기로 체력 보강

파워 보컬리스트 에일리의 힘의 원천은 고기다. 미국에서 나이나 21세까지 자라면서 형성된 식습관의 영향도 크다. 소·돼지·닭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데, 고깃집에 갈 시간이 없으면 도시락을 싸서라도 꼭 고기를 섭취한다. 특히 한국 생활을 하며 새로 접한 감자탕에 푹 빠져있다.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할 땐 탄수화물 섭취를 최대한 줄여 칼로리 균형을 유지한다.

▲전효성 – 과일로 스트레스 없는 몸매 관리

속옷 모델에 발탁될 정도로 볼륨 있는 보디라인을 자랑하는 시크릿 전효성의 비결은 식습관에 있다. 샐러드와 과일 등 칼로리가 낮은 음식으로 식단을 꾸려 소량씩 자주 섭취한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지나치게 적게 먹을 경우 오히려 볼륨감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은 먹되, 양을 미리 정해두고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와 몸매 관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김소은 – 따끈한 곰탕으로 든든한 겨울나기

MBC '마의'에서 숙휘공주 역으로 열연 중인 김소은의 '잇(it) 푸드'는 다름 아닌 탕류 음식이다. 전국 각지에 위치한 촬영장에서 고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만큼 삼계탕이나 곰탕 등 몸을 보할 수 있는 따뜻한 음식을 주로 먹으며 원기 회복에 힘쓴다. 건강에 이상신호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해두고 절대 과식하지 않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정소민 – 늦잠 잔 후 엄마표 집밥 밥상

시트콤 '스탠바이'에 이어 최근 JTBC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까지 각종 스케줄을 소화하고 오랜만에 휴식기를 갖는 정소민의 보양식은 '엄마의 따끈한 밥'이다. 바쁜 스케줄 중에도 가급적 한식 위주의 식사로 영양 균형을 맞춰 든든하게 챙겨 먹는다. 조금 늦은 아침까지 충분한 숙면을 취한 뒤 특제 채소주스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트러블 없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김정민 – 콜벵식+요가로 꿀피부 유지

온스타일 '겟 잇 뷰티'에서 뷰티 멘토로 활약 중인 김정민의 꿀피부 만들기 노하우는 단백질·탄수화물·비타민을 고루 챙기는 콜벵식에 있다. 시리얼과 삶은 달걀에 각종 채소를 곁들인 균형 잡힌 저칼로리 식단에, 울퉁한 하체 강화를 위한 플랜도 새로 짰다. 다이어트를 위해 흔히 하는 유산소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요요도 심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과 요가를 중점적으로 하는 편이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싸이 "올해는 월드투어 프로모션의 해"

뱀띠 스타들의 포부

뱀띠 스타들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 크고 작은 자신들의 소망을 풀어놨다.

◆싸이(1977년생)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에 신드롬을 일으킨 싸이는 2~3곡의 신곡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관객과 공감대가 형성된만큼의 인지도를 쌓는다면 내년 월드투어에 도전해보고 싶다. 올해는 투어를 위한 프로모션의 해가 될 것"이라고 국제 가수다운 포부를 밝혔다.

◆소녀시대 유리·써니·태연·티파니·제시카·효연(1989년생)

팀의 3분의 2인 여섯 명이 뱀띠인 소녀시대는 연초부터 왕성한 활동과 행복을 희망했다. 태연은 "멤버 중 여섯 명이나 뱀띠인 만큼 올해는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다", 써니는 "새해 첫날 발표한 곡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더 큰 성취를 올리겠다" 티파니는 "새해의 시작을 소녀시대 컴백으로 해 2013년은 특별한 해"라고 전했다. 유리와 제시카는 "일본 아레나 투어를 시작으로 해외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활약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씨엔블루 정용화(1989년생)

지난달 앨범 '리:블루'로 돌아온 씨엔블루의 리더 정용화는 첫 월드투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가장 희망한다. 새 앨범이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국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우빈(1989년생)

최근 종영한 KBS2 '학교 2013'으로 '핫'한 스타로 뜬 김우빈은 "올해는 더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싶다. 광고도 많이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한 해를 보냈으면 한다. 방송계·영화계 관계자 여러분들, 연락 기다리고 있다"며 애교있게 소망을 덧붙였다.

/박진영기자 [illegible]

"독자 여러분 희망 가지세요"

'연예계 큰 어른' 이순재 덕담

'연예계 큰 어른' 이순재가 메트로신문에 새해 덕담을 건넸다.

그는 "우선 정치가 편해야 국민이 편하다. 새해에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잘 해주길 바란다"면서 "북한 등 여러운 문제들이 있지만 독자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루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연예계 후배들에 대해서도 "늘 잘해주고 있다"면서 "건강하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연기를 펼치길 바란다"고 따뜻하게 격려했다.

이순재는 현재 김수현 작가가 집필하는 JTBC '무자식 상팔자'에서 대가족의 가장 연 호식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다.

최근 이 드라마가 비지상파 채널 드라마 중 역대 최고 기록인 수도권 시청률 10%를 돌파하는 등 높은 인기를 모으는 데 대해 그는 "기적같은 일"이라면서 시청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박진영기자

18살 생일, 아빠가 죽고
삼촌이 찾아왔다
박찬욱 감독 작품
스토커
미아 바시코브스카 매튜 구드 니콜 키드먼
2월, 전세계 최초 개봉
스토커 내한기념 레드카펫 프리미어
일시 : 2월 21일(목) 오후 7시
장소 : 여의도CGV

"모델돌은 왕관이자 가시관"

신곡 '돌스'로 인기몰이하는 나인뮤지스 한복 인터뷰

아이돌 최강 몸매를 자랑하는 나인뮤지스가 섹시한 무대의상 대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메트로신문 독자 앞에 섰다. 9개월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한 이들은 한층 성숙한 매력과 음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새해 첫 달부터 긴 다리를 성큼성큼 내디디며 분주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2013년을 꼭 나인뮤지스의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하며 독자들에게도 상그러운 기운을 함께 보냈다.

#모든 멤버 170cm이상… 편견 넘어서

사진 촬영과 인터뷰 내내 웃음과 풀기찬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 "지난 앨범보다 성적이 좋기도 하지만… 순위를 떠나서 이름 덤이 상처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웠던 무대에 오랜만에 오른 기쁨에다 신곡 '돌스'가 빠른 속도로 팬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유명 프로듀서 스윗튠과 네 번째 호흡을 맞춘 것으로, 한층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 카라와 인피니트 등 인기 아이돌을 한류스타로 만든 스윗튠의 승기어린 노력이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모델돌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거리를 두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벽을 없애기 위해 공백기 동안 멤버 각자 드라마·방송 등에서 열심히 내공과 만났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좋아하는 여성 팬이 많았는데, 이제 공개방송이나 팬 사인회에는 팬층이 폭넓어진 걸 피부로 느껴요."

2007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1위를 차지한 이샘을 비롯해 5명이 모델 출신이고, 모든 멤버의 키가 170cm를 넘는다. 같은 의상이라도 유독 이들이 입으면 방송 규제 대상이 되는 것도 탁월한 몸매 덧이다. 이번에는 오히려 노출 수위를 낮춰 허리 라인만 드러내는 의상을 준비했지만, 이들의 무대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모델돌'이라는 수식어를 떼내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외모보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그런데 '모델돌'도 우리에게만 붙을 수 있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우리에 대한 평가가 '노래만 좋은 줄 알았더니 몸매도 좋다'는 말로 바뀌어 가도록 노력해야죠."

#데뷔 4년… 올해는 우리의 해 만들겠다"

5인조로 출발했던 팀이 7인조→8인조로 몇 번 변화를 겪은 뒤 다시 9인조로 재정비돼 새 출발의 의지가 넘친다.

"그동안 변화가 있었지만 남아있는 멤버들끼리 흔들리지 말고 팀을 다지자고 다짐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끼리 격려하며 더욱 돈독해졌죠. 여자 아홉 명이 모이면 다툴 듯 있지 않겠냐고들 하는데, 천만에요. 언니와 동생들의 역할이 분명하고 조화가 잘 이뤄져 우리 관계는 가족이나 형제보다 끈끈하죠. 9명이 되니 안정감이 들고 초심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새해를 알가차게 연 이들은 설 연휴도 반납하고 활동에 매진한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바쁠 것 같다"며 오히려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달까지 '돌스'로 활동하다가 곧이어 새 앨범을 낼 거예요. 올해는 자주 앨범을 내면서 쉴 없이 팬들과 접촉할 겁니다. 데뷔한 지 4년째가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연말 가요제에 초대받은 적이 없어요. 올해만큼은 꼭 연말에 나인뮤지스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요."

"계획대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내년쯤 매니저도 없이 아홉 멤버만 따뜻한 나라로 우리만의 휴가를 떠나고 싶어요. 데뷔 때부터 꿈꿔왔던 바람이랍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이혜리 도우미: 디자인/박선형
한복협찬/진아영

서울 중구 신문로에 위치한 메트로신문 사옥에 예고 전경이 펼쳐졌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나인뮤지스 멤버들이 가혹한 경쟁을 말하듯 완벽한 포즈으로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민하·혜미·현아·세라·이샘·이유애린·경리·은지·경리

성공률 100% 연애비법 전격 공개!

star bag

'우결' 새 가상부부 낙점

2AM의 **정진운**(사진 왼쪽)과 배우 **고준희**가 MBC '우리 결혼했어요'의 새 가상부부로 낙점됐다.

앞서 스캐줄 문제로 하차한 이준·오연서 커플의 후임으로 이미 첫 촬영을 마쳤다. 올해 스물여덟 살인 고준희는 정진운보다 여섯 살 연상으로, 역대 '우결' 커플 중 황보·김현중과 함께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연하 커플이다. 이들의 가상결혼 생활은 9일부터 전파를 탄다.

뮤지컬 '그날들' 캐스팅

김정화가 뮤지컬 '그날들'에 캐스팅됐다.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7일 "김정화가 고 김광석의 노래로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 '그날들'에 캐스팅돼 연습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화가 극중 20년 전 실종된 통역관 '그녀' 역을 맡아 열연할 이 작품은 4월부터 대학로 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페로몬' 발표… 16일 공연

2인조 락밴드 톡식이 7일 싱글 '페로몬'을 발표했다.

데뷔 앨범 발매 후 3개월 만에 선보인 '페로몬'은 강한 비트의 드럼, 디스토션(소리를 날카롭게 변형하는 것)을 세게 건 기타 사운드가 돋보이는 하이브리드록 스타일의 곡이다. 톡식은 16일 '톡식 코드'란 타이틀로 첫 번째 단독 공연을 펼친다.

日 영화 '징크스' 주연 출연

걸그룹 티아라의 **효민**이 일본 영화 '징크스'의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그는 극중 한국 유학생 지호 역을 맡아 시미즈 쿠루미, 야마자키 켄토와 호흡을 맞춘다. 효민은 "한국 여가수 최초로 일본 영화 주연을 맡아 긴장된다.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너에게 닿기를'을 연출한 구마자와 나오토 감독의 신작으로 이달 중순 첫 촬영을 시작해 가을께 개봉된다.

"액션연기 아찔함의 연속"

'아이리스2' 장혁 밝혀… 이다해와 세번째 호흡

배우 장혁과 이다해가 '아이리스' 후속편의 주인공으로 세 번째 입맞춤을 한다.

극중 국가안전국(NSS) 태스크포스 이사아팀장 정유건 역을 맡은 장혁은 7일 열린 KBS2 새 수목극 '아이리스2' 제작발표회에서 "'불한당' '추노'에 이은 세 번째 연기 호흡"이라며 "아내와 결혼 전 6년간 연애하면서 감정이 더 깊어졌는데 이다해씨와도 작품을 하면서 같은 우정이 생겨 작품에 좋게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유건의 연인이자 NSS 요원 지수연을 연기할 이다해는 "이렇게 떨려 본 적은 처음이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방영 전부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액션 연기에 대해 장혁은 "다리가 지에 걸려 끌려가는 등 아찔한 장면이 많았다"고 고충을 털어놨고, 이다해는 "'여자 장혁'이 되겠다"면서 열정을 내비쳤다.

13일 첫 방영될 이 드라마는 2009년 방영된 '아이리스'의 3년 후 이야기를 그렸다. 장혁과 이다해를 비롯해 이범수, 오연수, 김영철, 임수향, 윤소이, 윤두준(비스트), 이준(엠블랙) 등 톱스타들이 총출동한다.

7일 KBS2 새 수목극 '아이리스2' 제작발표회에서 장혁(왼쪽)과 이다해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탁진향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룰라의 김지현 맞아?

양악수술 후 외모 공개 "리모델링 좀 했습니다"

혼성댄스그룹 룰라 출신 김지현이 양악수술 후 몰라보게 달라진 외모를 공개해 화제다.

김지현은 7일 방송된 SBS '스타 부부쇼 자기야'에 출연해 양악수술 후의 모습을 처음 드러냈다. MC 김용만이 "모습이 많이 바뀌어서 누군지 못 알아봤다"고 말하자 김지현은 "리모델링 좀 했다"며 수술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했다.

안면비대칭으로 인한 양악수술과 얼굴 탄력을 되찾아주는 리프팅 시술을 함께 받은 김지현은 "이를 악물고 자는 버릇 때문에 턱뼈가 딱딱해지면서 귀가 안 들릴 정도로 심각해져 양악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지현은 지난달 6일 부친상을 당했으나 슬픔을 이겨내고 새 음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탁진향기자

'정글의 법칙' 리얼 논란

박보영 소속사 대표 글 파문

박보영의 소속사대표가 SBS '정글의 법칙' 비난글을 올린 것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더컴퍼니엔터테인먼트의 김상유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글의 법칙-뉴질랜드' 편을 촬영하면서 5일에 한 번 정도 (박)보영이를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면서 "폭우로 고립될 뻔한 상황에도 철수 소식이 없어 초조해하다가 맥주를 마셨고, 원망스러운 마음에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사과했다. "동물을 풀어놓고 리액션 촬영했다는 글은 인서트 컷 촬영을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그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라마보다 더한 가짜 프로그램! 이젠 대놓고 셰프 숙소에서 술을 먹는다. 이런 데 최고의 프로그램상이나 주고 'XX하네'라고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SBS는 "일시로 호텔에 머무는 동안 사가 진작 차원에서 스태프들과 맥주를 마셨을 뿐"이라면서 "'정글의 법칙'은 모두 사실이며 앞으로도 이런 원칙은 철저히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보람기자

조인성 부상 투혼

손 다쳐 13바늘 꿰맨후 복귀

조인성이 SBS 수목극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촬영 중 부상 투혼을 발휘했다.

드라마 관계자에 따르면 조인성은 4일 경기도 이천 세트장에서 진행된 촬영에서 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벽을 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앞에 있던 유리가 깨지면서 왼손 엄지에 부상을 입은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13바늘을 꿰맨 후 돌아와 촬영을 마쳤다.

주연배우의 부상으로 현장이 잠시 술렁였지만,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조인성의 모습에 스태프들 모두 분위기를 다잡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조인성이 제대 후 첫 복귀작으로 출연을 확정 지은 '그 겨울…'은 노희경 작가, 김규태 감독이 손잡은 감성 멜로 드라마로 13일 첫 방송을 시작한다.

/권보람기자 kwon@

보이프렌드 모든 멤버 일본영화 주연으로

6인조 아이돌 그룹 보이프렌드의 멤버 전원이 일본영화 '고고송이케멘5'의 주연으로 나선다.

산케이스포츠 등 현지 언론은 7일 "지난해 8월 일본에 데뷔한 K팝 샛별이 일본 영화계에 처음으로 진출하면서 주인공까지 거머쥐어 더욱 인기를 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작인 소설 '고고송이케멘5'는 전자서적으로 공개돼 약 60만 회의 열람 횟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었다. 전자서적의 인기에 힘입어 단행본과 게임으로도 만들어졌다. 유명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후쿠하라 시쿠라코 감독이 연출해 올 여름 개봉을 목표로 촬영에 들어간다.

영화는 5명의 꽃미남 학생이 같은 여학생을 좋아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랑 쟁탈전을 그린다. 보이프렌드는 이달 말부터 3주간 현지에서 촬영하며 주제가도 맡았다.

멤버 영민은 "일본 영화에 출연하게 돼 무척 영광이다. 원작과는 다른 진화된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순호기자

샤이니 '드림 걸'로 국내 컴백

5인조 남성 그룹 샤이니가 누나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국내에 컴백한다.

샤이니는 19일 아이튠즈 및 각종 음악 사이트에 정규 3집 음원을 공개하고 국내 활동을 재개한다. 타이틀곡 '드림 걸'은 경쾌한 느낌의 댄스곡으로 샤이니는 지난해 선보인 히트곡 '셜록'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일본에서 발표한 모든 싱글을 오리콘 톱 3에 진입시키고 대규모 아레나 투어를 여는 등 현지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졌다. 또 글로벌 K-팝 열풍의 축으로 주목받아 이번 앨범도 전 세계에 동시 공개하고 해외 팬들을 사로잡는다.

컴백에 앞서 9일 밤 12시30분 방송되는 MBC 설 특집 '샤이니의 어느 멋진 날'에 출연해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인다. /유순호기자

지드래곤 日 4대돔 투어

한국 솔로가수 최초… 36만 관객 몰릴 듯

80만 관객 동원으로 자신감을 얻은 빅뱅의 지드래곤이 아이돌 최강 솔로의 입지를 굳힌다.

지드래곤은 국내 솔로 가수 중 최초로 일본 4대 돔 투어 공연을 연다.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4월 일본 3대 돔(후쿠오카·세이부·오사카) 투어를 계획했던 그는 예상보다 티켓 수요가 많아 오사카 돔 1회와 나고야 돔 2회 공연을 추가했다.

이번 공연의 예상 관객은 총 36만여 명으로 국내 솔로 가수 중 처음으로 일본 4대 돔 투어를 하게 된 데 이어 최다 관객 동원 기록까지 세우게 됐다.

돔 투어는 4월 6일 후쿠오카 돔을 시작으로 20~21일 세이부 돔, 27~29일 오사카 돔, 6월 1~2일 나고야 돔으로 이어진다. 월드투어는 다음달 30~31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단독 공연에서 막을 올린다.

지난해 JYJ의 김준수가 아시아와 북미·남미·유럽을 도는 공연을 개최해 솔로 아이돌 가수로는 가장 큰 규모의 월드투어 기록을 세웠다. 지드래곤은 현재 한국과 일본 이후의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를 뛰어넘는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가요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드래곤은 빅뱅의 리더로서 지난달 말 10개월에 걸친 월드투어를 마친 바 있다. 빅뱅은 12개국 24개 도시에서 48회 공연으로 80만 관객을 동원하며 전 세계에 팬층을 탄탄히 다졌다. 그는 솔로투어에 틈틈이 새 앨범을 발표하는 등 쉼 없는 활동을 이어간다.

한편 빅뱅의 다른 멤버들도 솔로 활동에 매진한다. 탑은 영화 '동창생' 개봉을 앞두고 있고, 대성은 27일 일본에서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슈워제네거 19일 방한

정치인에서 액션스타로 돌아온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새 영화를 들고 한국 팬과 만난다.

그는 김지운 감독의 영화 '라스트 스탠드'의 국내 개봉(21일)을 앞두고 19~20일 방한한다(2012년 12월 4일자 메트로신문 단독 보도).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격으로 방문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배우로 자신의 작품을 들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슈워제네거는 기자간담회 참석을 비롯해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10년 만의 영화 복귀작으로 할리우드에 처음 진출하는 김 감독의 '라스트 스탠드'를 택한 그는 마약 밀수업자에 맞서는 시골 보안관으로 출연한다. /유순호기자

야무지게 냠냠… '먹방 하정우' 답다

'베를린' 300만 공약 영상 공개

영화 '베를린'이 300만 관객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정우의 먹방(먹는 방송) 영상을 공개했다.

6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영화 서비스에 공개된 영상에서 하정우는 잼을 바른 빵, 바게트, 아침밥을 야무지게 먹으며 먹는 연기의 달인다운 면모를 뽐냈다.

그는 전작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황해'에서 보는 사람을 군침 돌게 하는 연기를 선보여 '먹방 정우'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베를린'의 류승완 감독은 "하정우가 연기한 표종성은 음식도 외롭게 먹어야 하는 캐릭터인데, 그가 너무 맛있게 먹는 바람에 영화를 위해 일부 장면을 편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보람기자 kwon@

아이파크백화점

롯데몰 김포공항

시어머니·며느리 손잡고 '몰링 힐링'

영등포 타임스퀘어 문화공연 … 롯데몰 김포공항 정상영업

날씨가 변수가 됐다. 혹극한파 가 설 연휴 기간 끝이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뜻 나들이를 나서기가 쉽지 않아졌다. 따뜻한 실내를 찾아 쇼핑과 먹거리, 놀거리를 즐기려는 이들을 잡기 위해 서울 도심 속 쇼핑몰들이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연다.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예년 연휴가 짧은 탓에 고향에 가지 않고 서울에서 연휴를 보낼 고객들도 많은 것으로 판단돼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설 당일인 10일에만 오후 1~10시까지 단축영업을 하며 9일과 11일은 정상영업(오전 10시30분~오후 10시)한다. 1층 아트리움에선 9~10일 오후 5시부터 문화공연을 열어 명절 분위기를 띄운다. 9일엔 여성 보컬 리싸가, 10일에는 3인조 밴드 비닐리어쿠스틱이 이 무대에 오른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용산의 아이파크몰은 콜 내 백화점만 설날인 10일 문을 닫고, 음식점과 쇼핑 매장들 대부분은 연휴 내내 손님을 맞는다. 최근 인기 있는 아이파크몰 내 아이스링크 또한 문을 연다.

아이파크몰은 서울 용산역과 붙어있는 특징을 살려 오늘(8일)과 내일(9일) 5만원 이상 구매고객 중 호남선KTX 일반열차 기차표를 가져오면 시온품을 하나 더 증정한다. 용산역을 통해 귀향하는 고객이 한복을 입고 패션관 1층 비디비치 매장에 오면 무료로 한복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단장(8~9일)도 해준다.

롯데몰 김포공항 또한 연휴 내내 정상영업을 한다. 롯데몰 내 롯데백화점은 10~11일 쉬고, 롯데마트는 10일 하루 문을 닫는다.

신도림의 디큐브시티 내 디큐브백화점은 설 당일(10일) 오후 1시부터 영업한다. 백화점 내 맛집들도 문을 여는데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700석 규모의 한식저잣거리에선 우리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내 명절 기분을 낸다. 디큐브아트센터에서도 휴관일 없이 뮤지컬 '어이다'를 무대에 올린다.

여의도 IFC몰은 설날 당일에만 오후 1시에 문을 열고, 나머지 9일과 1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상영업을 한다.

연휴 기간 방문하는 이들을 위한 선물을 어떻 준비했다. 20만원 이상 구매시 삼성 스마트 PC 등의 경품 당첨권 등이 들어있는 '미스터리 복주머니'를 나눠준다.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은 추첨해 중형지동차 '쉐보레 말리부'를 증정한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민속놀이 넘치는 리조트 1박 2일

짧은 연휴(9~11일) 탓에 장거리 여행은 부담스럽다. 아이 손잡고 가까운 리조트로 떠나보자. 고향에 다녀오며 들러도 좋다. 제기차기·윷놀이 등 풍성한 민속놀이에 아빠·엄마가 더 즐겁다.

대명리조트는 전국 9개 사업장에서 민속놀이 체험, 가훈 써주기 등 신나는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홍비치 리조트는 9~10일 투호월 선맞대회를, 소노펠리체는 10일 가족 노래자랑을 진행한다.

곤지암리조트에서는 9~10일 윷놀이, 제기차기 등을 즐긴 후 스탬프를 모아오면 곤지암리조트 객실 이용권과 미타임패스 리프트권 등을 선물로 준다.

평창 휘닉스파크는 설 당일(10일) 무료 합동 차례를 지내고, 차례 음식을 나눠 먹는다. 제주 휘닉스아일랜드는 8~10일 투숙객을 대상으로 '행운복권 이벤트'를 열고, 무료 숙박권, 식사권 등을 증정한다.

한화리조트 설악은 9~10일 기훈 쓰기, 떡메 치기 행사를 진행한다. 쏘라노 로비에서는 클래식 작은 음악회가, 설악워터피아에서는 줄고래 마리톤 및 설날 가족 장기자랑이 열린다.

/박지원기자 pjw@

전통음식 체험·전시회… 즐길거리 곳곳에

서울시 풍성한 문화행사

설 연휴 기간인 9~11일 서울 시내 공원·박물관·문화공간 등에서는 전통놀이와 풍성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운현궁에선 설 연휴 기간 매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윷놀이, 널뛰기 등과 차례상 차리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마련된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떡메 치기, 한식·강정 체험, 떡국 나누기 등 맛있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과 쌍이 돌리기 등 민속놀이 체험이 펼쳐진다.

서울풍물시장 전통문화 체험관에선 연휴 기간 내내 윷놀이판, 핑시조롱 만들기 등 총 14개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설 당일인 10일에는 한성백제박물관이 오후 1시부터 투호, 거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진행한다. 또 백제생활문화특별전 '백제의 맛~음식이야기'가 무료 전시된다.

설 연휴 기간인 9~11일 서울시내 주요 사찰과 공원, 고궁, 박물관에서는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민속놀이와 공연, 전시, 체험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같은 날 오전 11시~오후 5시까지 서울역사박물관을 찾아가면 '설맞이 새문길 문화장터'와 이시이 전통문 음식 시식행사를 즐길 수 있다.

박물관 로비에선 '미가돼지 삼형제', 토끼와 자라의 용궁구경' 줄 인형극과 권영예술단의 "북한 전통예술공연"이 펼쳐져 자녀들과의 관람이 줄을 듯하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팀버튼전'과 'NEW&NOW 2012 신소장작품전'을 함께 하면 더욱 유익한 나들이 될 수 있다.

최근 개장한 서울 시청사 지하 시민청 의 첫 설은 풍선아트, 7080포크송, 클래식 공연, 페이스페인팅 체험 등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서울 시내 10개 공원에서도 윷놀이, 널뛰기 등 전통놀이 체험과 새를 관찰하거나 별의 생태를 공부하는 등 공원마다 각양각색으로 펼쳐지는 디채로운 행사를 만날 수 있다. 남산공원, 중랑캠핑숲, 용산가족공원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자연과 전통에 대해 배우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이어져 가족나들이에 안성맞춤이다.

서울시 문화공연 홈페이지(culture.seoul.go.kr)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각종 행사 일정을 확인하면 편리하다. /채윤정기자 @

佛 미녀스타 드뇌브, 딸과 공연 화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전설의 미녀스타 카트린느 드뇌브(오른쪽)가 비러브드 에서 친딸과 공연해 화제다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14일 국내에서 개봉된 이 영화는 드뇌브가 1964년작 '쉘부르의 우산' 이후 무려 반세기 만에 다시 도전한 뮤지컬 로맨스다. 구두 한 켤레로 우연히 시작된 사랑 때문에 45년 동안 이별과 재회를 경험하는 주인공 마들렌으로 나와 특유의 우아하면서도 정열적인 사랑 연기를 선보인다.

사랑의 열병을 앓는 딸 베라 역은 실제 딸인 키아라 마스트로얀니가 맡아 눈길을 끈다. 드뇌브가 이탈리아 명배우 마르첼로 마스트로얀니와 동거하며 낳은 딸로, 부모의 장점만을 쏙 빼닮아 뛰어난 미모를 자랑한다. 국내 수입사인 프레인 글로벌은 "제작사에 따르면 드뇌브 모녀가 함께 출연하는 것을 강력하게 희망했다고 한다"며 "가족과 예술적 파트너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들의 모습이 가장 큰 볼거리"라고 귀띔했다. /조성준기자

'스토커' 18세 그녀 도대체 누구야

무명 바시코브스카 감성연기 극찬
호주 출신 배우· "이 영화 그 위한 것"

미아 바시코브스카(왼쪽)와 박찬욱(오른쪽) 감독이 촬영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미아 바시코브스카가 박찬욱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 '스토커'로 전 세계 영화계에 새로운 여성 캐릭터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달 하순 내한을 앞두고 국내 관객들의 호기심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태어난 바시코브스카는 부모가 모두 사진작가다. 예술가 가정을 이어받아 유년 시절 발레리나를 꿈꿨지만, 열네 살 때 불의의 부상으로 꿈을 접은 뒤 배우의 길로 접어들었다.

2010년 팀 버튼 감독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를 열연해 할리우드의 샛별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구스 반 산트 감독과 캐리 후쿠나가 감독의 러브콜을 받아 '레스트리스'와 '제인 에어'의 주인공을 꿰차는 등 거장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박 감독과 손잡은 '스토커'에선 소녀도 어른도 아닌 열여덟 살 인디아를 연기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갑자기 나타난 삼촌(매튜 구드)과 어머니(니콜 키드먼) 사이에서 연쇄 실종사건에 휘말리는 캐릭터다.

지난달 말 막 내린 선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뒤 할리우드리포터와 버라이어티지 등 해외 언론들은 "바시코브스카의 감성 연기는 '비틀주스'의 위노나 라이더를 능가하며 모든 청소년기의 우울함에 대한 새로운 아이콘이 될 것이다" "이 영화는 그를 위한 작품"이라며 엄지를 세웠다.

국내 수입과 배급을 맡은 20세기 폭스 코리아는 "'올드보이'의 강혜정과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 '박쥐'의 김옥빈 등 박 감독의 전매특허인 순수하면서도 본능적인 여성 캐릭터를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바시코브스카는 28일 개봉을 앞두고 21일 열리는 내한 기념 레드카펫 행사와 프리미어 시사회에 박 감독과 함께 참석한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제니퍼 로렌스(왼쪽)와 브래들리 쿠퍼.

가장 보고싶은 영화에 '실버라이닝…' 뽑혔다

힐링 로맨스의 수작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이 2월 둘째 주 극장가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개봉될 이 영화는 복합상영관 체인 롯데시네마와 인터넷 예매 사이트 맥스무비가 실시한 '2월 둘째 주 가장 보고 싶은 영화' 설문조사에서 각각 29%(277명)와 33.5%(429명)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관객들의 기대가 이처럼 치솟고 있는 데는 개봉 전부터 쏟아지고 있는 국내외 평단의 극찬과 입소문이 한몫하고 있다. 미국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연예 전문 주간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는 "한 명의 천재 감독에 의해 탄생된 완벽한 선물" "이처럼 멋진 로맨틱 코미디의 탄생"이라고 호평했다. 영화평론가 듀나도 "로맨틱 코미디를 보면서 이렇게 꽉 찬 느낌을 받은 것도 오래간만"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수입사는 하루라도 빨리 관람하고 싶어하는 관객들의 빗발치는 요청을 받아들여 설 연휴 기간인 9~11일 서울 압구정 CGV에서 시전 유료 시사회를 마련해 개봉전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실버라이닝 …'은 24일(현지시간) 열릴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감독(데이비드 O 러셀)·남녀주연(브래들리 쿠퍼·제니퍼 로렌스)·남우조연(로버트 드 니로) 등 무려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조성준기자 when@

What's New

롯데카드는 롯데하이마트카드 를 7일 발시했다. 롯데하이마트카드로 롯데하이마트에서 100만원 이하 결제 시 결제금액의 8%를 연 8만원까지 할인해준다. 100만원 초과 결제 시에는 결제금액의 8%를 연 40만원까지 롯데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롯데리아는 지난 1997년 서울 백담DT점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 오픈 후 현재 20여 개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통 요충지인 경부고속도로 입구의 판교DT점에나 롯데리아 매장과 함께 커피전문점, 도넛전문점 및 과 특별매장으로 운영하는 명품DT방 등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SK건설은 5를 경기 화성시 반월동에서 분양 중인 '신반월SK뷰파크' 가 물족 예방 환경설계인 '셉테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셉테드학회에서 주관하는 셉테드는 아파트 단지 내 범죄 유발 요인과 환경을 줄을 방사해 부여하는 범죄 안전인증이다.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국연합복권(주)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국내 복권산업의 타 사행산업(합법·불법) 대체성 및 경제적 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복권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연평균 2조2783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연평균 1조1541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연평균 1만7629개 등 경제적 효과 유발 효과를 가져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해 11월 선보인 '떠먹는 타안의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요구르트' 4종이 발시 3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량 2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플레인, 딸기, 복숭아, 블루베리의 맛 4가지 맛으로 주원이 특수 코팅 기법인 발수리드를 적용함으로써 발효액이 들 들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니어게스는 손쉽게 스타일 사는 비결로 컬러 블록 아이템을 추천한다. 밝고 선명한 컬러가 조화된 컬러 블록 아이템은 일반적으로 컬러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시도하기 어려운 스타일로 여겨지지만 블랙, 브라운 및 밝은 컬러의 이우러 안에 이너로 매치해주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명절음식에 어울리는 '화이브미니'

동아오츠카 실속 선물세트

동아오츠카는 설날 선물로 1만~2만원대 실속형 음료 선물세트를 제안한다.

음료 선물세트는 실속 있는 가격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 없어 명절 선물로 선호하고 있다.

동아오츠카 공식 쇼핑몰(donga-otsuka.co.kr/shop)에서 구입할 수 있는 포카리스웨트 선물세트는 포카리스웨트 분말 스위즈 보틀 오자병으로 구성된 세트이다. 특히 포카리스웨트 선물세트는 제품 구성 뿐 아니라 패키지 디자인에도 심혈을 기울여 패키지 자체가 선물을 포장한 것과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군고구마를 통째로 갈아 넣은 '부리두유 든든한 고구마 선물세트'는 콩의 단백질과 고구마 속에 들어 있는 섬유질, 여기에 비타민, 무기질의 함량이 풍고루 들어 있어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직장인과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안성맞춤인 제품이다.

대표적인 인기 선물세트로 손꼽히는 식이섬유음료 화이브미니 선물세트는 약국, 전, 고기 등 칼로리가 높고 기름진 명절 음식에 특히 잘 어울린다.

초콜릿 대신 핫초코 선물 어때

자뎅 밸런타인데이 추천

자뎅은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 뻔한 초콜릿 선물 대신 부드러운 핫초코를 추천한다.

자뎅의 '폴스타일 까페모리 핫초코'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핫초코 제품이다. 고품질의 네덜란드산 프리미엄 코코아 분말에 풍부한 밀크 맛과 거품을 살려 입안 가득 부드러운 초콜릿 맛을 느낄 수 있다.

'까페모리 화이트 초코'는 은은한 향과 풍부한 화이트 초콜릿의 조화가 일품이다. 커피전문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화이트 초코 제품을 화이트 카카오 버터의 달콤함이 부드러운 우유 맛을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다. 집에서는 즐겨 즐길 수 없었던 프리미엄 화이트 초콜릿 맛을 손쉽게 만들어 테이크아웃으로도 즐길 수 있다.

필리핀 최고의 호텔 뽑아줘요

온필 톱20 선정 이벤트

필리핀 포탈사이트 온필(onfil.com)에서는 필리핀 여행 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온필 초이스 2012 어워즈'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필리핀을 대상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호텔, 레스토랑, 바, 클럽, 스파, 쇼핑, 투어 등 5개 분야의 베스트를 10순위 부문은 톱 20을 선정해 시상하는 구성이다.

선정 기준은 지난해 온필 회원들이 참여한 설 좀 평, 후기, 사진 및 블로그를 수렴한 점수를 바탕으로 필리핀 관광청과 필리핀 여행전문가들의 질수를 취합해 레스토랑, 스파, 쇼핑, 투어, 바, 클럽 등 5개 부문의 톱 10을 선정해 순위를 발표한다. 여행객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호텔 부문에 선정된 톱 20은 일반 고객의 온라인 투표를 받아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참가자들 중 추첨을 통해 세부 3박4일 커플 자유여행권(세금 및 유류할증료 불포함)과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지산리조트 최대 50% 할인

다음달 중순까지 행사

지산리조트가 설 연휴를 맞이 최대 50% 할인 및 다음달 중순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분증을 지참한 올리 울티 고객(초등학생 할인 불가)이 티켓을 구매할 경우 리프트 40%, 렌탈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서울버스 예약 고객 및 주중 주간 무료 셔틀 예키지 발한 이벤트 문자(MMS)를 갖고 티켓을 구매하면 리프트와 렌탈 각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셔틀 렌틀 할인 이벤트 문자를 갖고 티켓 구매 시에는 렌탈 50% 할인, 셔틀버스 예약 문자를 갖고 방문 시에는 리프트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야간권 방야권 야심권에 한해 리프트 40%, 렌탈 40% 할인된 세트권을 부주 각 200종, 부클 각 300종에 한해 선착순 예약 발인 판매한다.

부산대점 오픈기념 행사

레스모아가 8일 부산대점을 신규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3일까지 할인 및 다양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전 품목을 20% 할인 판매하고 매장 내에서 즐겨지는 농구 게임을 통해 퀴대게 발갑, 양말 등 경품을 증정한다. 또한 KB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최고급 보디 보습 세트도 발정한다.

한편 부산지역 최대 상권인 부산대 서거리에 위치한 레스모아 부산대점은 지역 고객과 감성과 소통하기 위해 로컬 문화 마케팅을 펼치고 다양한 이벤트 활동 지속적으로 전통적 부산대 지역 상권의 대표 슈즈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귀농·귀촌 교육생 500명을 찾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귀농·귀촌(희망)자를 대상으로 2013년도 귀농·귀촌 교육생 500명을 모집한다.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 정책 이해, 귀농·귀촌 쉽게 농기계, 성공사례, 실습, 현장 견학 등 귀농·귀촌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으로 완성됐다.

경기도민 및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접수는 방문 접수 및 e-메일(sk1222@gg.go.kr)로 매 과정 교육 2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 틀리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 nongup.gyeonggi.kr

What's New

예스24는 국내 최초 터치스크린과 클라우드 기능을 지닌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 터치에 대표적인 인문교양 시리즈인 '살림지식총서'를 담은 '크레마 터치 지식 에디션 W'를 선보였다. 크레마 터치 지식 에디션 W에는 1호 출간 10여 년 만에 400호를 출판한 살림지식총서 시리즈 가운데 건강과 역사, 철학, 예술, 자연과학, 인물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엄선한 100권이 포함됐다.

섹스칸리반스는 다가오는 설을 맞이 포춘스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전국 섹스칸리반스 매장에서 쿼터 이상 구매 고객에게 증정하는 포춘스쿨 쿠폰에는 행운의 메시지와 함께 선물 당첨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관광상품권 100만원(3명), 애플 아이패드 미니(7명),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영화 예매권, 아이스크림 교환권 등 푸짐한 선물을 마련했다.

풀도는 발도사리면 과 놀부NBG 전문 놀부사리면 등 사리면 2종을 발시한다. 두 제품은 면발이 가늘고 쫄깃해 피가를 비롯한 각종 국물요리와 볶이 등 사리면을 이용한 요리에 최적화한 제품이다. 또한 면에 국물이 잘 배어들어 조화를 이루며 장시간 면을 반죽해 면발 식감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천재교육 트위터를 통해 새해 덕담 한마디 이벤트를 진행한다. 천재교육 트위터(@ChunjaeEdu)를 팔로우한 뒤 친구(@친구 아이디)와 천재교육 트위터를 함께 태그해 덕담을 남기고 덕담을 받은 친구도 동일하게 보낸 친구(@친구 아이디)와 천재교육 트위터를 함께 태그해서 답글 덕담을 남기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CGV 주말 관람 예매권, 커피빈 음료권, VIPS 주말 샐러드바 이용권 등 총 40명에게 새해 선물을 증정한다.

설 선물 소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가운데 5일 오전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중앙우체국 집배원들이 택배를 위해 우체국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우체국에는 평소 물량의 약 2배에 달하는 1만5000여 개의 선물 소포가 몰아쳤다.

서울랜드는 9~11일 설날 특집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분증을 지참한 범띠 고객에게는 자유이용권을 50% 할인해 주고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1만원에 자유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전통 춤 공연 '춤에 새긴 역사', 뮤지컬 '빵날림이 소녀의 꿈'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했다.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8 What time did you used to get up last year? 과거에 대해 말하기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샘플입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저는 보통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늦게 깬 적은 전혀 없어요.
저는 매일 아침 늘 같은 시각에 산책을 하곤 했어요.
저는 늘 정확히 8시 30분에 출근하곤 했어요.
보통 9시 전에 회사에 도착하곤 했어요.
저는 매년 여름 저희 이모댁에 가곤 했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I usually went to bed early and never woke up late
I would take a walk in the morning at the same time every day
I would always leave for work at exactly eight thirty
I would usually arrive at work before nine
I used to visit my aunt's house every summer.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What did you do in the morning?
B I would take a walk early in the morning 매일 같은 시각에.

정답 at the same time every day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 would usually arrive at work [before / after] 9
2 I used to visit my [aunt's house / grandmother's house] every summer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부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nearly	부 거의	nearly 50% of the respondents 응답자들 중 약 50%
personally	부 손수, 직접, 개인적으로	The CEO will personally interview them CEO가 직접 그들을 인터뷰할 것이다
promptly	부 정확히, 제 시간에, 즉시	promptly at 10 o'clock 정각 10시에
soon	부 곧, 이내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steadily	부 꾸준히, 끊임없이 steady 형 꾸준한, 한결같은	Labor costs have steadily increased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했다
thoroughly	부 철저하게 thorough 형 철저한	thoroughly investigate 철저히 조사하다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Who 의문문 유형 "누가 ~를 하나요?"

[illegible]

Q Who will give a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은 누가 하나요?
답변 포인트 질문의 내용

A1. Hanna Scott will give a presentation. 한나 스캇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입니다.
핵심 답변

A2. The presentation will be given by Hanna Scott. 프레젠테이션은 한나 스캇에 의해 주어질 것입니다.
핵심 답변

[능동태] 사람이 주어일 때 Hanna Scott [will give] the presentation
행위자 동사 대상

[수동태] 대상이 주어일 때 The presentation [will be given] by Hanna Scott.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됐습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A조 선두 우즈베크 헛발질 아시안컵 예선 홍콩과 0-0

한국과 함께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 A조에 속한 이란 레바논 우즈베키스탄 카타르는 7일 A매치데이에 2015 아시안컵 예선전을 치렀다. 한국은 지난 대회 3위로 본선에 자동 진출한 상태다.

A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홍콩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선수가 1명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골을 넣지 못해 0-0으로 비겼다. 이란은 자바드 네쿠남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레바논을 5-0으로 완파했다.

다음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최강희호와 월드컵 최종예선 5차전을 치르는 카타르는 골잡이 유세프 아흐메드의 맹활약으로 말레이시아를 2-0으로 제압했다.

/김민준기자

최경주 미 골프자선대상 수상

탱크 최경주(43·사진)가 미국골프기자협회(GWAA)에서 주는 자선 대상인 찰리 바틀릿 상을 수상한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7일 "2007년 타이거 우즈, 2008년 그레그 노먼, 2009년 잭 니클라우스, 2010년 어니 엘스 등에 이어 최경주가 2013년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2007년 최경주재단을 세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던 최경주는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2000년 PGA 투어 진출 이후 이런 상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전했다.

GWAA 초대회장의 이름을 따 1971년에 제정된 이 상을 아시아 선수가 받은 것은 최경주가 처음이다. 시상식은 마스터스 대회 기간인 4월에 대회 장소인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열린다. /김민준기자

7일 새벽 영국 런던에서 크로아티아와의 평가전을 마친 최강희호가 허탈한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격은 '삐걱' 수비는 '숭숭'

공·수 엇박자 최강희호 총체적 난국… "남은 기간 조직력 보완"

최강희호가 공·수에서 총체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7일 새벽 열린 크로아티아와 평가전에서 0-4로 완패했다. 이동국·박주영(셀타 비고), 손흥민(함부르크),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등을 활용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실험했지만 모두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전반전에 원톱으로 나선 지동원만이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 기대를 모았던 손흥민은 측면 공격수로 전반 초반에만 번뜩이다가 침묵했다. 후반전 투톱으로 나선 이동국·박주영도 과감한 플레이를 하지 못했고,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못했다.

최재수(수원)·이정수(알 사드)·곽태휘(알 샤밥)·신광훈(포항)이 나선 수비라인 역시 문제였다. 이들은 전반 초반부터 크로아티아 공격진이 강하게 압박을 해오자 허둥댔다. 첫 실점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마리오 만주키치(뮌헨)와의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헤딩 슈팅을 허용해 허무하게 내줬다.

최 감독은 경기 후 "전반과 후반에 전술을 나눠 준비했는데 둘 다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특히 크로아티아가 세트피스에 강해 집중력을 요구했지만 잘 안 됐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한 경기만 가지고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며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남은 최종예선 4경기에서는 선수들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조직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에 나선 태극전사들도 "대다수 유럽파들이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다. 조직력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하지만 남은 월드컵 최종예선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박종우 IOC 징계위 출석

2012 런던올림픽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펼쳐 동메달 수여가 보류된 박종우(23)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한다.

박종우는 외국인 국제 변호사, 대한축구협회 고문변호사, 체육회 관계자 등과 함께 9일 스위스 로잔으로 이동해 11일 열리는 IOC 징계위원회에 참석한다.

잉글랜드 23년 만에 브라질 제압

노장 램파드 결승골 … 스페인, 우루과이 완파

축구종가 잉글랜드가 23년 만에 브라질을 제압했다.

잉글랜드는 7일 영국 런던 웸블리스타디움에서 열린 A매치 평가전에서 프랭크 램파드의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1990년 3월 친선경기 승리 이후 23년 만으로 잉글랜드 축구협회 창립 150주년을 기념한 경기에서 승리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

전반 19분 골키퍼 조 하트가 호나우지뉴의 페널티킥을 막아 위기를 넘긴 잉글랜드는 전반 26분 루니의 선제골로 앞서가다 후반 3분 브라질 공격수 프레드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하지만 후반 15분 노장 램파드가 루니의 패스를 받아 결승골로 연결해 귀중한 승리를 따냈다.

'무적함대' 스페인은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로드리게스의 2골 활약에 힘입어 3-1 완승을 거뒀다.

신예들을 대거 투입한 네덜란드는 렌스의 선제골로 앞서가다 종료 직전 동점골을 내줘 이탈리아와 1-1로 비겼다.

포르투갈은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골을 넣었지만 에콰도르에 2-3으로 무릎을 꿇었다. 아르헨티나는 아게로와 이과인의 골을 묶어 스웨덴을 3-2로 제압했고, 독일은 라이벌 프랑스를 2-1로 꺾었다.

/김민준기자

잉글랜드 대표팀 램파드(왼쪽)가 7일 열린 브라질과의 친선전에서 후반 15분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신화통신